



[금융] '치매보험 만루홀런' DB생명 신계약서 깜짝 4위 04



Economy

| | | | |
|----------|------------------|----------|----------------------|
| 코스피 | 2089.62 (+12.70) | 코스닥 | 691.55 (-0.39) |
| 금리 (우대금) | 1.98 (0.00) | 환율 (USD) | 1123.80 (+0.30) (6일) |

'부패' 누명에 시드는 방산... '국방-산업' 두토끼 다 놓쳐

<이스라엘 모델>

위기의 방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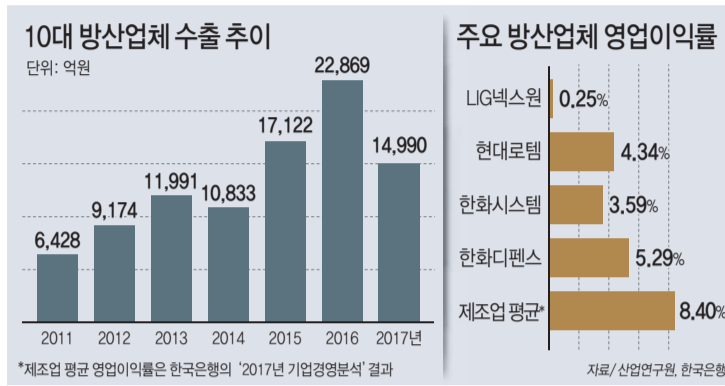
<上>비리산업 전략

방위사업 육성·투명성 목적 관료주의적 감독 수단 전략

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무죄율 무려 50% 달해 무리한 수사 결과 지적도

최근 방위산업(이하 방산)이 영업이익이 3~5%에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방산은 경제의 논리를 떠나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는 주요사업이다. 하지만, 방산업체들은 낮은 영업이익·부패기업·일자리 창출 등 3중고의 압박을 받고 있어, 방산 시장을 떠나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큰돈버는 부패기업 이미지 벗어나 채우석 방위산업회회장은 6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방산 콘트롤 타워의 부재로 방산업체들과 방산이 위기에 놓여있다"고 전제한 후 방산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회장은 "방위사업상 방산기업은 원가를 공개하는 대신 9%의 영업이익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은 높아도 3~5% 수준"이라며 "방위사업의 육성·투명성이라는 목적이 관료주의적 관리·감독의 수단으로 전락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관료들이 목적을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성과만을 생각하다보니 규제를 위한 관리 감독이 방산을 옥죄이게 된 것"이라며 "이런 관리·감독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벌어진 문제가 방산 비리·부패라는 누명을 쓰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적하거나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 등 검찰

이 구속기소한 사건의 대다수는 일반 형사범의 무죄율의 17배에 달한다.

지난달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사업 비리 관련 처벌 현황 진단 및 분석 연구' 발표회에서 기일 국방대학교 교수는 "통영함 등 주요 8개 사업과 관련해 구속기소한 34명 중 1심 무죄는 11명, 2심 무죄는 17명으로 구속 후 무죄율이 무려 50%에 달했다"며 "이 같은 무죄 비율은 3% 안팎에 불과한 일반 형사범 무죄율의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산비리를 근절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기체계의 획득과정과 방산시장의 흐름에 밝은 전문가들은 감사원과 검찰이 전문지식 없이 무리한 수사를 펼친 결과라고 지적한다.

무리한 수사가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마저 '부패 노

이로제'에 빠지게 한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방사청은 국방컨벤션에서 "2018 방위사업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실상 방사청이 방산을 '부패'라는 틀속에 가둔 셈이다.

◆방산의 미래를 준비해야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방산의 역사와 과정을 짚어보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방사청 설립으로 그동안 묻혀왔던 문제가 드러나 상대적으로 비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홍 편집장은 "방산의 시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자주국방으로 시작됐지만, 그 이면은 미국의 무상군사원조가 끊어질 상황에서 60만 대군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면서 "기본적인 총기와 화포조차 국산화하지 못하면 막대한 외화를 들여 수입을 해야했기 때문"이라고 한국 방산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국방과 국가경제란 양 측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산업체의 자생적 능력을 키워줘야 할 시기"라며 이스라엘 방산업체의 발전 사례를 제시했다.

이스라엘은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방산물자의 국산화를 시작했지만 현재 이스라엘 방산기업들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거나 가능성이 있는 업체의 육성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턱없이 짧은 연구기간, 원가후리기식 최저입찰, 국내업체에게만 가혹한 지체상금 등 가혹한 방산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절차상의 문제만으로 방산업체를 보려는 안된다는 것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문형철 국방전문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가을 불청객 초미세먼지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건보료 3.49% 인상... 8년만에 최대폭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 직장인 月평균 3746원 ↑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3.49% 오른다. 직장인들은 월 평균 보험료를 3746원 더 내야한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

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

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이세경 기자 selee@

大-中企 이익 나누면 세제혜택

당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검증 통해 인센티브 차별화

<성과공유제 vs 협력이익공유제 비교>

| 성과공유제 | 협력이익공유제 |
|--|--|
| ①원가 연동가격제* (Cost-Plus Pricing) 모델 | ①산출연동보상제* (Output-based) 모델 |
| * 납품가격이 실제 원가에 연동하여 변경되는 반면, 이익마진은 원가의 일정비율(%)로 고정 | * 납품가격 및 협력사 이익마진이 협력사업의 최종결과물(Output)인 대기업 이익 등과 연동 |
| ②수탁기업이 달성한 성과 공유 (원가절감, 물량확대 등) | ②공통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 추가 이익공유 |
| ③원가정보 공개 필요(추가 단가인하 불미) | ③원가정보 공개 불필요 |
| ④하도급 구조에 적합 | ④개방형 혁신에 적합(미래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
| ⑤제조업에 적합한 모델 | ⑤제조, 유통·IT·플랫폼 등 신산업 적합 |
| ⑥대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도움 | ⑥중기 혁신 유인과 대기업 경쟁력 강화 |

대기업이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프로젝트 등을 통해 거둔 이익을 이들 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성과공유제와 함께 협력이익공유제를 추가 시행키로 하면서 정보기술(IT), 유통, 플랫폼 관련 대기업들도 하청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이 함께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협력이익'이란 대기업이 한해 사업을 통해 얻은 전체 이익이 아니라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부문별, 사업장별로 원청(위탁)인 대기업과 하청(수탁)인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말한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판매수익배분 등에 대해 계약을 한 뒤 이들이 노력을 통해 신제품 개발, 국산화 등 연구개발(R&D)에 성공, 판매량이 늘거나 이를 통해 영업이익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당초 계약한 만큼을 나눠갖는 구조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장공인정책실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존 성과공유제의 한계였던 중소기업의 원

가정보 공개가 필요 없는 모델로 대·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양극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여부, 대상기업, 목표설정, 이익공유 정도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정부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도입 기업과 공유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인·검증 시스템과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으로 나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우수' 기업의 경우 ▲수위탁 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등급별 가점(1점)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동반성장주거정부포상심사후포상(대통령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평가 등급과 관계없이 도입

하는 모든 기업에게는 법인세 세액공제 10%, 손금인정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가중치(3) 적용, 정책금융기관 정책자금 융자 우대, 정부 R&D 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의 유형도 각각 제시했다.

협력사업형은 R&D 등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고, 마진보상형은 유통이나 IT 등 플랫폼 업종에서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콘텐츠 조화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이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난 뒤 원가 절감 등 직접적 이득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한 기존의 성과공유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당신의 年 金을 연금 하겠소” 증권사 IRP 유치전쟁

(개인형퇴직연금)

12개 증권사 3분기 IRP적립금
3조716억원... 1년새 26.4% ↑
수수료 인하 등 유치 이벤트 풍성

증권사 간 개인형퇴직연금(IRP) 유치 경쟁이 올해도 뜨겁다. 연금 자산은 퇴직 시기까지 꾸준한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증권사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지난해 IRP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상품 적립금액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IRP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관리계좌다.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 또는 퇴직이나 이직으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 등으로 가입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자영업자와 공무원, 군인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RP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12개 증권사의 IRP 적립금은 올 3분기 기준 3조716억원으로 1

(증권사별 IRP 이벤트)

| 증권사 | 이벤트 내용 |
|--------|---|
| 미래에셋대우 | 개인연금또는 IRP 신규 고객에게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제공 개인연금 5000만원 이상 계약 이전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시드니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4박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 숙박권(1박)을 제공 |
| NH투자증권 | 연금상품(연금저축계좌, IRP, DC 추가 납입)에 가입, 이전, 추가 납입 시 백화점 상품권 |
| 삼성증권 | 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타금융기관에서 이전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신규 계좌를 개설한 경우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하고 납입하면, 각 연금계좌별로 5000원, 최대 1만원의 모바일 상품권 |
| KB증권 | 연금저축/IRP계좌 보유 고객이 회당 20만원 이상 또는 1년 이상 이체 약정을 신청할 경우 식품 기프티콘 증정 연금저축, DC/IRP 계좌에서 신규 가입, 계약 이전 또는 기존 계좌에 추가 입금한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Liiv Mate 30만 포인트 증정 |
| 한화투자증권 | IRP를 신규 개설하고, 300만원 이상 납입하거나 월 2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타월 세트와 치약+가글 세트 중 하나 지급 신규 개설 후 퇴직연금 펀드를 매수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모바일상품권 지급 |
| 현대차증권 | IRP 또는 연금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불입 시 가입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의 상품권 지급 |

/각사

년 새 2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이 IRP 계좌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 덕분이다. 증권사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각종 수수료 인하, 상품권·기프티콘 제공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 해 IRP계좌의 개인 추가 납입분에 대해 운용·자산관리보수를 받지 않기로 하면서 증권사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시킨 바 있다.

지난달부터 삼성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타 금융기관에서 이전하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

을 지급하고 있다. 또 신규 계좌 개설 시 월 10만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를 약정하고 납입하면 최대 1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3분기 기준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IRP적립금(1조 1002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는 개인연금 또는 IRP 신규 고객에게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제공하고 있다. 또 개인연금 5000만원 이상 계약 이전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시드니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4박6일), 포시즌스호텔 서울 숙박권(1박)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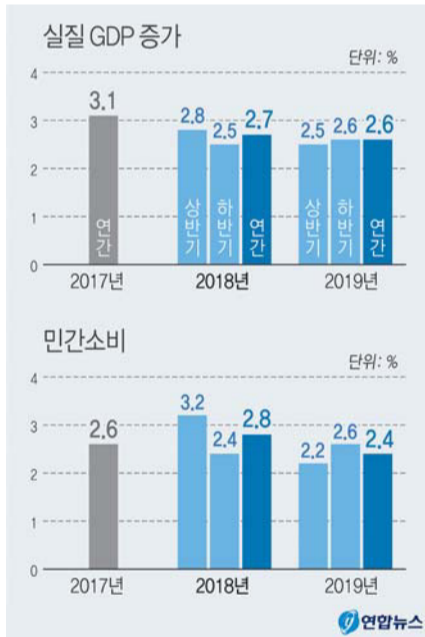
KB증권은 신규 IRP 계좌 신규 가입, 계약 이전 또는 기존 계좌에 추가 입금한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리브메이트(Liiv Mate) 30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5일 IRP를 첫 출시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 비대면 고객에 한해 추가 적립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퇴직금을 입금하면 운용관리 수수료를 50% 할인해 준다. 또 신규 개설 후 퇴직연금 펀드를 매수하면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모바일상품권을 지

올 성장률 전망 2.7%, 내년 2.6%

제조업 성장 둔화, 건설업 부진에
KDI, 각각 0.2%p, 0.1%p 내려

(KDI 주요경제 전망)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6%로 하향 조정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는 올해 20만명대 중반에서 7만명으로, 내년 20만명대 초반에서 10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이는 KDI가 올 상반기에 전망했던 올해 2.9%, 내년 2.7%에 비해 각각 0.2%p와 0.1%p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수출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설비와 건설투자가 급감하는 등 투자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년은 2.6%로 각각 내렸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투자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비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내수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3.5%에서 -1.8%로, 건설투자 전망치는 -0.2%에서 -3.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건설투자는 -3.4%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2.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타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산업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또 수출증가율이 세계교역량 증가

율을 하회하는 등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고 봤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미·중 무역분쟁 등의 위험이 가시화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올해 20만명대 중반에서 7만명으로, 내년 20만명대 초반에서 10만명으로 반 토막 이상 하향 조정했다.

또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9%로 2001년(4.0%)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1.6% 상승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KDI는 대외위험요인 중 세계 경제 성장세와 교역량 증가세 약화,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하락, 대외경쟁력 약화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내 위험요인 중에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을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세종=최신우 기자 grandtrust@

유류세 인하분 즉시반영 직영주유소 찾기

유류세 15%인하 첫 날
휘발류값 6.1원 내린 1684.2원
경유는 7.0원 하락한 1488.8원

정부가 6일부터 국제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류세를 인하한다.

이에 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2019년 5월 6일 11시 59분 59초 출고분까지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첫날 6일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온라인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당 평균 6.1원 하락한 1684.2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이어지면서 평균가격은 앞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경유도 전국 평균 기준으로 7.0원 하락한 1488.8원을 기록했다. 서울은 20.2원이나 떨어진 1563.2원으로 집계됐다. LPG는 평균 16.5%내린 917.9원, 서울은 28.4원 떨어진 950.9원이었다.

조선업 수주량 1000만CGT... 세계 1위 우뚝

총 발주량 2305만CGT 중 45% 차지
한국 조선업이 3년 만에 수주량 1000만 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를 넘어서며 수주량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수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305만CGT



정부의 유류세 15% 인하 방침이 시행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한 주유소에서 리더당 휘발유 가격이 할인되어 판매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한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장자우너부 등 관계부처는 유류세 인하가 시작되는 이날부터 실시간 가격 동향 파악에 나섰다. 현장에 유류세 인하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펴볼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 상황을 살펴보면 정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유소는 재고와 상관없이 즉시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 기름을 판매하고 있다. 직영주유소는 약 1만2000여개로 전국 주유소의 약 10%에 불과하다. 이에 직영주유소, 최저가주유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오

피넷의 접속이 폭주, 사이트 접속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했다.

일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의 경우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을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영주유소는 통상 1~2주 정도의 재고분을 쌓아놓기 때문에 이미 기존 유류세를 내고 기름을 사왔을 가능성이 높다. 즉, 기존 재고 소진까지 가격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 구조상 유류세 인하를 소비자 등이 체감하려면 약 열흘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최근 3년간 1~10월 누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016년 199만CGT, 2017년 2049만CGT, 2018년 2305만CGT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10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73만CGT 가운데 중국이 44%인 32만CGT로 가장 많은 일감을 따냈고 한국이 31%인 22만CGT, 이탈리아가 16%인 12만CGT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클락슨이 집계한 10월 말 기준 전 세계 수주잔량은 7781만CGT로 전월보다 113만CGT 줄었다. /정연우 기자 yw964@

콜옵션 자산양수로 종료 분식 회계 논란 끝낼까

삼바·바이오젠과 바이오에피스 공동 경영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자산양수도 가 마무리 된다. 양사가 실제 콜옵션 행사로 공동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커졌다.

◆부채비율 절반으로 줄어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 922만6068주를 7일 양도하고, 바이오젠은 인수주식에 대한 금액과 이자를 합쳐 총 약 7595억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합작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 - 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6월 29일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번 주식 양수도가 끝나고 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지분율은 기존 5.4%에서 49.9%로 올라가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재무제표상에 반영된 대각예정자산(약 2조2478억 원)과 과생상품부채(약 1조9336억 원)는 삭제되고, 2018년 4분기에는 관계기업처분이익 약 4413억원이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또 바이오젠의 콜옵션 비용 지급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 6월말 기준 약 4779억에 서 1조 2374억

원으로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94.6%에서 42.6%까지 감소한다.

◆분식회계 논란 잠재울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도 끝날지 관심이 모인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 주장이 근거를 찾았기 때문이다.

분식회계 논란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관계사 전환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가치가 5조원 규모로 재평가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규모 수익을 낸 것이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통해 바이오젠과 합작설립한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인식해야 했다며 '회계처리 위반 중과실'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는 알지 못한 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회사측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극대화

됐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행사가격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가 훨씬 큰 값은 내가격 상태에 접어들었다"며 "국제회계 기준(IFRS) 규정에 따라 시장가치로 지분을 재평가해야 했기 때문에 2015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2012년 설립 당시의 회계처리를 문제삼고 있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콜옵션 행사로 자산양수도가 모두 마무리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사 전환 논리는 사실상 성립이 됐다"며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 초기부터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결론을 번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위는 지난달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조치안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통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cou.co.kr



지점 줄이는 국내은행 지점 늘리는 글로벌은행

비대면 채널 확산 대응전략 극과극

국내의 은행들의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이 강화되는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같지만 대응은 달랐다.

국내 은행들은 디지털 뱅킹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프라인 지점은 빠르게 없애고 있다.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은행들의 지점 통폐합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은행은 오히려 지점을 확대하고, 고객과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 중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점수는 3098개다. 지난 2015년 3513개에서 2016년 3333개, 2017년 3124개로 최근 3년새 400개가 넘는 지점이 사라졌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인터넷 뱅킹의 보급과 함께 은행 지점의 역할 축소와 폐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됐고,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등장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점이나 인력 운영 방안은 은행의 가장 큰 고민이 된 상황"이라며 "지점을 전반적으로 없애기보다 전략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만 지점을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디지털 시대를 맞았지만 글로벌 은행의 대응은 다르다.

대부분 지점은 은행 경영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영



<4대 시중은행 지점 수 추이>

| 구분 | 2018년 6월 | 2017년 | 2016년 | 2015년 |
|----|----------|-------|-------|-------|
| 국민 | 905 | 924 | 1005 | 1022 |
| 하나 | 689 | 696 | 785 | 853 |
| 우리 | 766 | 765 | 780 | 872 |
| 신한 | 738 | 739 | 763 | 796 |
| 합계 | 3098 | 3124 | 3333 | 3513 |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업 확장을 위해 신규 지점을 개설하거나 디지털기술과 접목해 최첨단 형태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JP모간은 올해 초 미국 내 400개 지점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필라델피아, 텔러웨이 등 JP모간이 약세인 지역에 50개의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오하이오, 신시내티 등 신규 시장에 향후 4년간 500개의 새로운 지점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500개의 기존 지점 위치를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구조로 다시 디자인할 계획이다.

씨티는 지점 숫자는 줄였지만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이 태블릿 PC로 장구를 떠나 직접 상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의 케반카의 경우 디지털 전용 은행으로 시작했지만 고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교통요지에 50개의 지점을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국제금융센터강정현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복잡한 금융거래나 재무설계 등이 필요한 고령층과 고액자산가, 자영업자 등의 지점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은행 업무를 지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도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지점이 사라지기 보다는 디지털 기술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접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지점은 미래에도 은행의 주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겠지만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개혁과 효율화가 필수"라며 "은행 브랜드를 반영한 물리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어느 플랫폼으로 접근하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객 서비스를 향유하도록 지점을 오픈 채널의 일부로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가을은 '신규폰'의 계절... 삼성·LG 이어 애플·화웨이까지

갤노트9, 국내 100만대 돌파 V40 씽큐, 카메라 5개 탑재 6.5인치 '아이폰XS맥스' 주목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부터 중저가 모델까지 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삼성전자, LG전자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애플, 화웨이, 샤오미 등 해외 업체까지 자사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9'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달 16일 국내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다. 국내 출시 53일 만이다. 갤럭시노트9은 6.4인치 화면에 노란색 '스마트S펜'에 블루투스 기능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 사진을 찍을 때나 프레젠테이션



갤럭시노트9. /삼성전자



아이폰XS. /애플

을 할 때 리모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후면에 1200만 화소 듀얼카메라, 전면에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4000mAh(밀리암페어시)의 대용량 배터리를 갖췄으며 가격은 128GB(기가바이트) 기준 109만4500원이다.

스마트폰 최초로 트리플(3개)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7'도

23일 출시했다. 갤럭시 A7은 6인치의 화면에 후면 2400만·500만·800만, 전면 24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세계 최초로 후면에 쿼드(4개) 카메라를 장착한 '갤럭시 A9'은 11월 중 전 세계에 출시 예정이다. 후면에 2400만 화소의 기본 렌즈뿐 아니라 망원 렌

즈, 초광각 렌즈, 심도 렌즈를 탑재했다.

LG전자는 지난달 24일 전·후면 5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LG V40 씽큐(ThinQ)를 출시했다. 6.4인치 대화면에 후면 1200만(표준)·1600만(초광각)·1200만(망원), 전면 800만(표준)·500만(광각)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후면의 트리플카메라를 이용한 기능이 눈에 띈다. 촬영하기 전 서로 다른 3개의 카메라로 비추는 장면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트리플 프리뷰', 셔터 한 번이면 서로 다른 렌즈로 촬영한 연속 사진과 이 사진들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트리플 샷' 등의 기능이다.

이달에는 5개 카메라를 활용한 '퀵샷' 기능이 추가된다. 후면 카메라로 다양한 화각의 사진을 한 번에 찍을 수 있을뿐 아니라 촬영하는 사람의 표정과 배경까지 담아낼 수 있다. 가격은 64GB 기

준 104만9400원이다.

애플은 아이폰X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아이폰XS를 조만간 국내에 출시한다. 5.8인치 화면에 후면 1200만 화소, 전면 7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전면엔 얼굴 인식 기능인 페이스 ID를 지원하는 3D 센싱 카메라를 넣어 얼굴 인식을 통해 스마트폰 잠금해제를 할 수 있다.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외모가 바뀌어도 인식 가능하다. 가격은 64GB 기준으로 136만4000원이다.

새롭게 등장한 라인업인 아이폰XS맥스도 주목된다. 6.5인치의 패블릿(폰+태블릿)으로 갤럭시노트9(6.4)보다 큰 화면을 갖췄다. 64GB 기준 151만8000원이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업체도 중저가 신제품 출시를 통해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달 26일 KT를 통해 '비와이 폰 3(P20 라이트)'를 공식 출시했다. 지난 3월 출시된 플래그십 라인업 'P20 시리즈'의 보급형 버전으로 노치디자인과 페이스 잠금해제 기능 등을 담았다. 5.84인치의 화면과 3000mAh의 배터리를 제공한다. 후면 1600만·200만 화소, 전면 16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가격은 33만 원이다.

샤오미도 최근 국내에서 포코폰 F1 출시 기념회를 개최했다. 포코폰 F1은 켈릭 스냅드래곤 845, 6GB·8GB 메모리, 4000mA 등 뛰어난 하드웨어 성능을 갖췄음에도 가격은 4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6.18인치 화면에 후면 1200만·500만 화소 듀얼 카메라와 전면 2000만 화소 카메라를 갖췄다. 인도 시장에서 5분 만에 약 300억원의 1차 물량이 완판된 바 있다. /구서윤 기자 yun514@

CEO의 힘!... 2.2% 점유율, 4년 만에 5% 눈앞

‘치매보험 만루홈런’ DB생명 신계약서 ‘깜짝 4위’

10월 신계약 MS 6.5% ‘사상 최대’
연령층 확대한 치매보험 실적 견인
대표 연임 성공... 안정적 성장 전망

DB생명이 지난달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9월 출시한 치매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틈새시장으로 치매보험이 뜨고 있어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6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DB생명은 10월 보장성 신계약 MS(Market Share·시장점유율) 기준 6.5%를 기록했다. 평균 MS가 4.6~4.8%였던 점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성장이다.

DB생명 관계자는 “10월 실적에서 회사 창립 이래 사상 최고 실적 신기록을 세웠다”며 “이는 삼성·한화·교보생명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생보업계 자산규모 16위인 DB생명으로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낸 셈이다.

DB생명은 보장성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다. 보장성 상품 판매 비율이 전체의 96%에 달할 만큼 저축성 상품은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10월 들어 실적이 급증한 배경은 9월 말 출시한 치매보험이 인기를 끌면서다. 지난달 신계약 월납 초회보험료는 37억원으로 이중 16억원이 치매보험 판매였다.



이태운 DB생명 대표이사. /DB생명

DB생명은 지난 9월 17일 각 치매단계별 진단금 지급과 간병자금을 평생 지급

하는 ‘(무)간병비 평생받는 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 나이를 30~75세로 확대해 고연령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기간도 85세, 90세, 95세 만기로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혔다. 특히 중증치매에 따른 간병자금을 최대 종신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최근 치매보험이 틈새시장으로 떠오르면서 DB생명의 하반기 실적 전망은 밝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치매환자 수는 약 76만명으로 전체 노인 대비 유병률은 10.32%에 달한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인 점을 고려하면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DB생명의 상반기 성적도 좋았다. DB

생명은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7.3% 줄었으나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75억원) 대비 54.5% 늘어난 42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200억원에서 317억원으로 58.5% 늘었다.

이태운 대표가 지난해 말 한차례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표 취임 이후 2014년 2.2%였던 보장성 신계약 MS는 2015년 3.1%, 2016년 3.9%, 2017년 4.6%로 증가 추세다.

DB생명 관계자는 “업계 MS는 소수점 0.1% 올리기도 쉽지 않다”며 “올해는 5.0%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BNK부산은행-부산시 200억 일자리펀드 조성

대출 한도 업체별 최대 3억원

BNK부산은행이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시와 함께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생 펀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BNK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시는 총 200억원의 일자리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각 1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금융지원이 필요한

고용 창출 실적 우수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부산은행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와 ‘대출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이며 대출한도는 업체별 최대 3억 원이다.

금리는 업체별 산출금리에서 1.80%포인트 감면되고, 일자리창출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등은 추가로 0.1~0.2%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ri15@

교보생명

새 캐릭터 ‘교보러버스’



교보생명은 2030세대와 친근하게 소통하고 고객들에게 한결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가족사랑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캐릭터를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새로운 캐릭터는 신라시대 금관 장식물인 곡옥을 모티브로 해 교보생명의 초성(교·보·생·명)을 원색 계열의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했다.

새책과 열매를 상징하는 곡옥을 통해 생명과 희망의 소중함을 형상화한 것으로 고무의 질감을 살린 부드러운 디자인

에 가족사랑의 의미를 담았다.

새 캐릭터 이름은 ‘교보러버스’로 고무처럼 둥글게 부푼 모습(Rubber)과 애호가, 팬(Lover)을 의미하는 영단어 러버에서 따왔다.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는 척척박사 ‘고고’, 보듬어주고 보살펴주는 가족지킴이 ‘보보’, 소소한 일상 속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꾼 ‘소소’, 꿈과 희망을 찾아 언제나 도전하는 모험가 ‘모모’로 구성됐다.

/김희주 기자

‘외국인 투자유치’ 은행권 왕좌는 KEB하나銀

유공자 시상식서 대통령상
개인부문 산업부장관 표창

KEB하나은행은 지난 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8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과 개인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수출증대 등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투기업 및 투자유치 유공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3년 이후 6년 연속 개인부문 수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단체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금융기관임을 공인받았다.

KEB하나은행은 ▲1999년 국내은행 최초로 외국인 전담 투자센터(FDI·Foreign



박지환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전무(왼쪽에서 두번째)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세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 Direct Investment)를 신설한 이후, 현재 ▲명동, 강남, 부산, 제주 등 전국에 4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며, ▲은행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Global 1Q Bank)에도 다국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및 외투법인 대상의 다양한 특화 금융상품을 출시 하였으며 ▲외국인투자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인직원을 채용했고, 무엇보다

▲146개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해 활발한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환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 전무는 시상식에서 “향후에도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인전문은행』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하며, KEB하나은행에 대한 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mh@

삼성카드 모바일학습 스타트업 매스프레소와 MOU

삼성카드가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통한 공유가치창출(CSV) 경영의 일환으로 모바일 학습 플랫폼 스타트업 ‘매스프레소’와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6일 밝혔다.

매스프레소는 기술을 통해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 해소를 목표로 2015년 6월 설립됐다. 특히 2016년 1월 국내 최초로 문제 풀이 및 해설 데이터베이스(DB) 검색 서비스를 함께 갖춘 모바일 학습 플랫폼 ‘판다’를 출시해 교육소외지역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판다 앱에 모르는 문제를 사진을 업로드 하면 9000여명의 서울대, 카이스트 등 명문대 출신의 검증된 튜터들이 작성한 DB에서 해설을 무료로 5초 안에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는 이번 업무제휴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판다 1개월 유료 이용권을 삼성카드 결제 시 1개월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하는 ‘1+1’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나유리 기자

신한은행 ‘쏠’ 해외 데뷔... 베트남 버전 출시

맞춤메뉴 서비스 현지화

신한은행은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모바일 통합 플랫폼 쏠(SOL)의 베트남 은행 버전인 ‘신한은행 베트남 쏠(Shinhan Bank Vietnam SOL)’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2월 출시한 신한 쏠(SOL)은 국내에서 혁신적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기반으로 재테크, 부동산, 빅데이터 등으로 폭넓은 콘텐츠 확장을 이뤄가고 있다. 로그인 한번으로 간편하게 정리된 계좌정보와 편리한 기능을 담은 초기화면, 해시태그 도입 등으로 출시 이후부터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번 ‘Shinhan Bank Vietnam SOL’ 출시를 통해 베트남에서도 쏠(SOL)의 우수한 UI·UX로 사용 편의성을 높인 बैं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국내 고객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서비스인 ▲삼성패스, 아이폰 Face ID를 포함한 ‘로그인 방식 다양화’ ▲이체기능을 한 화면에

통합하고, 등록된 이체 정보로 한번에 송금할 수 있는 ‘원클릭 송금’ ▲휴대폰 번호와 수취인 성명만 입력하면 계좌번호 없이도 이체할 수 있는 ‘연락처 이체’ ▲고객별 초기화면 내 메뉴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맞춤메뉴 서비스’를 현지화해 제공하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초맞춤과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쏠이 해외에 데뷔하게 됐다”며 “신한금융그룹 신성장 동력의 핵심 영역인 디지털·글로벌 전략을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응선)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리더사uction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멀티태스킹... 1300만 화소... 얼굴인식 잠금해제... 돌비사운드... 대용량배터리

삼성 갤럭시 J4+, 자급제폰 넘어 '가성비 끝판왕'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로 몰입감 ↑
초절전모드로 충전걱정은 'NO'
고급스러운 후면 커버로 디자인



삼성전자가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스마트폰 '갤럭시 J4+'를 12일 국내에 출시한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스마트폰 '갤럭시 J4+'를 12일 국내에 출시한다.

갤럭시 J4+는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함께 대용량 배터리, 우수한 카메라 기능 등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성능을 갖춰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한다.

6.0형의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멀티 윈도우 기능을 지원해 문자, 웹 서핑 등 다양한 멀티

태스킹을 원활하게 해준다.

18.5대 9 비율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J4+는 영상과 게임 등 콘텐츠를 즐기는 사용자에게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한다.

또한 갤럭시 J4+는 초절전 모드를 지원하는 33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야외에서도 충전 걱정 없이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강력한 카메라 기능도 눈에 띈다. 1300

만화소(F1.9)의 후면카메라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촬영 버튼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플로팅 셔터' 기능으로 한 손으로도 편하게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

전면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심도를 조절할 수 있는 '셀피 포커스'와 촬영 환경에 최적화된 밝기를 적용해 주는 'LED 플래시' 기능을 적용해 누구나 손쉽게 아름다운 셀피를 남길 수 있다.

외관은 유려한 곡선형 마감 처리로 손에 꼭 맞는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급스러운 후면 커버로 감각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외에 이어폰·헤드폰을 통해 생생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 듣는 즐거움을 더했으며, 얼굴 인식으로 잠

금 해제를 가능하게 해 사용 편의성도 높였다.

블랙·골드 두 가지 색상의 자급제폰으로 출시되는 갤럭시 J4+의 가격은 26만 4000원으로, 삼성닷컴과 11번가에서는 12일부터, 이통사 온라인몰 및 타 온라인 판매처에서는 19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J4+ 출시를 기념해 11번가와 함께 J4+ 사전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한다.

6일 오후 3시부터 11일까지 선착순 111명을 대상으로 갤럭시 J4+ 사전 체험단 모집을 실시하며, 이벤트 기간에 체험단에 선정된 후 제품 사용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OK캐시백 포인트로 리워드를 제공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통신료 할인 + **ADT** **보안상품 할인**

| 통신월정액 | | | 가입연차 | | |
|------------|------------|------------|------------------|----------------------|-----|
| 2만9700원 미만 | 2만9700원 이상 | 5만6100원 이상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월 1100원 할인 | 월 3300원 할인 | 월 5500원 할인 | 한달치 할인 (최대 11만원) | 한달치 50% 할인 (최대 11만원) | |

묶으면 3년간 최대 52만 8000원 할인!

ADT캡스 인수한 SKT, 첫 시너지 상품 출시

3년간 최대 53만원 할인 'T&캡스'

SK텔레콤이 지난달 ADT캡스를 인수한 이후 첫 시너지 상품을 출시했다.

SK텔레콤은 자사 이동통신을 쓰는 고객이 ADT캡스 보안상품에 신규 가입하면 3년간 최대 52만8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T&캡스'를 6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T&캡스 가입 고객은 통신요금과 보안상품 이용료를 동시에 할인 받을 수 있다. 고객은 월 정액 5만6100원 이상 통신요금제 이용 시 월 5500원, 2만9700원 이상이면 월 3300원, 2만9700원 미만이면

월 1100원을 할인 받는다.

아울러 통신 요금제에 관계없이 보안상품 이용료를 가입 1년차에 한달치, 2~3년차에는 매년 한달치의 50%를 할인 받는다. 보안 상품의 1회 최대 할인액은 11만원이다.

가입 신청은 전국 SK텔레콤 대리점, 고객센터나 ADT캡스 고객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 후 ADT캡스 전문 상담원이 매장 형태, 출동 옵션 등에 따른 최적의 보안상품을 추천해준다. /김나인 기자 silkni@

POSCO "50년 동반자, 고객과 더불어 발전을"

2018 포스코 글로벌 포럼 성료

열연·강건재 등 8개 세션 진행

포스코가 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18 포스코 글로벌 EVI(Early Vendor Involvement) 포럼'을 개최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행사는 고객과의 사업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잠재고객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 페스티벌로 지난 2010년 시작됐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에는 국내외 고객 1400여명을 초청해 지난 50년간 동반자로서 함께한 데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미래 50년에도 고객사의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정우 회장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50년'(Next 50 years with POSCO)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세상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도전이었지만 꿈을 향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50년이 지난 오늘날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사로 성장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가스틸, 포스맥, 고망간강과 같은 프리미엄 철강재와 배터리용 고기능 양극재·음극재와 같은 프리미엄 에너지 소재들을 더 많이 개발해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열연, 강건재, 에너지조선, 자동차, 전기차소재, 냉연·가전, 선재, 스테인리스 등 8개 테마별 세션이 진행됐으며 이들 주제와 연계시킨 '월드프리미엄 제품 전시'를 통해 124개 전시품을 선보였다.

포스코 관계자는 "에코에너지, 메가시티, 네오 모빌리티 등 미래 메가트렌드를 주도할 우리 고유의 철강 기술력과 차별화된 솔루션을 소개했다"면서 "내일(7일)은 포항·광양제철소와 포스코켄텍 견학 프로그램, 서울 포스코센터 스틸갤러리 관람 등의 일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

수험생 'LG V40 씽큐' 사면 SD카드 증정

LG전자 수능 수험생 프로모션

LG전자가 수능 수험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LG V40 씽큐(ThinQ)'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LG전자는 수능 시험일인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LG V40 씽큐를 구매하는 수능 수험생에게 200GB 마이크로 SD카드를 증정한다. 또 LG V40 씽큐 구매 수험생들 중 10명을 추첨해 15인치 LG 그램 노트북, LG 톤플러스, 포켓포토 등을 제공한다.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LG 모바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해시태그로 수험생을 응원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같은 제품을 제공한다.

LG V40 씽큐는 국내에 출시된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후면 3개(망원, 표준, 초광각), 전면 2개(표준, 광각) 등 5개 카메라를 장착했다.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사용자가 움직일 필요 없이 한 번에 다양한 화각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로 다른 렌즈가 인물과 배경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기 때문에 배경을 흐리게 해 인물만 강조하거나, 다른 사진을 배경



LG전자가 수능 수험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LG V40 씽큐(ThinQ)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LG전자

으로 합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야간이나 흔들리는 차 안 등 다양한 조건에서도 또렷하게 촬영할 수 있는 기능들이 대거 강화됐다. LG전자는 화질 알고리즘을 개선해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 생기는 노이즈를 저감시켰고, 역광에서 인물만 더욱 밝게 표현해 화사한 풍경과 사람의 표정까지 생생하게 촬영해준다.

셔터를 누르고 사진이 찍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LG V30 씽큐 대비 50% 줄었다. 듀얼 PDAF 기술은 초점 잡는 시간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고, 연속 촬영 속도는 한층 빨라졌다. /구서윤 기자

삼성전자 빨래방용 세탁·건조기 출시

삼성전자가 빨래방용 세탁·건조기를 내놓는다. 삼성전자는 B2B 세탁기와 건조기(사진)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일반 사업장 제품을 우선 출시하고, 세탁 전문업소용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B2B 세탁기는 17kg 대용량으로 만들어졌다. 세탁시간은 38분이 걸린다. B2B 건조기는 11kg용량으로 45분내에 건조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2개 제품은 필요에 따라 직렬과 병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직렬 설치시 제품 하단에 별도 디스플레이를 추가해준다. 양방향 도어 적용으로 공간에 맞게 문을 여닫는 방향도 바뀌준다. /김재웅 기자 juk@



LG유플러스 네트워크 직원들이 상암사옥에 구축된 5G 네트워크 품질 통합 측정 분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U+, 5G 품질 측정 분석 시스템 도입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최적의 네트워크 품질 관리를 위해 '5G 네트워크 품질 통합 측정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내 이동통신 시험 계측 장비 전문 제조사인 이노와이어리스가 개발한 장비다.

5G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트래픽 품질을 분 단위로 측정해 분석 결과

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 5G 초기 LTE 네트워크와 병행해 사용되는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품질 분석 기능을 통합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의 품질에 이상이 생겼는지를 문제 원인과 함께 자동으로 찾아 분석하고 조치방법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준다. /김나인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이스라엘에 개소

현대차, AI 스타트업 투자로 기술 확보 박차

현지 전문업체 '알레그로 ai'와
고도화된 AI 기술 확보 나서

향후 獨·中에도 센터 확충
글로벌 5대 혁신 거점 마련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차는 이스라엘에 세 번째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인 '현대 크래들 텔아비브'를 개소하고 현지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인 '알레그로.ai'에 전략투자를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대 크래들 텔아비브는 미국의 '현대 크래들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제료원'에

이은 세 번째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센터로 다양한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탈이 모여있는 텔아비브 시내 사로나(sarona)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인공지능 분야 등 미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현지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이스라엘의 유력 스타트업 알레그로.ai에 투자를 단행하고 고도화된 AI 기술 확보에 나선다. 2016년 설립된 알레그로.ai는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업체다.

알레그로.ai는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서비스 하는 엔드 투 엔드 솔루션 제공 기업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분야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알레그로.ai와 미래기술 및 품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구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루비 첸 현대 크래들 텔아비브 사무소장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은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 실현과 신속한 업무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 중 하나"라며 "이번 투자로 이스라엘 내 혁신기술 분야에서 현대차의 입지를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를

전담할 조직도 신설했다. 지난달 말 전략 기술본부 산하에 인공지능을 전담할 별도 조직인 'AIR Lab'을 신설하고 이를 총괄할 전문가 김정희 이사를 '네이버랩스'로부터 영입했다.

'AIR Lab'은 ▲생산 효율화, ▲프로세스 효율화, ▲고객경험 혁신, ▲미래차량 개발, ▲모빌리티 서비스, ▲서비스 비즈니스 등 현대차그룹의 '6대 AI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는 향후 독일 베를린과 중국 베이징에도 각각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확충해 글로벌 5대 혁신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AMG 스피드웨이, 車 복합문화 공간으로

레이싱체험·신차출시행사 등 진행
16일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 개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AMG 스피드웨이로 성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AMG 스피드웨이는 벤츠코리아가 지난 5월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제휴협력을 맺고 개장한 세계 최초의 AMG 브랜드 전용 트랙이다. 현재 레이싱 체험, 마케팅 이벤트, 신차 출시 행사, 내부 교육의 장 등을 실시하며 자동차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6일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메르세데스-AMG만의 드라이빙 교육 프로그램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를 개강해 고객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독일 메르세데스-AMG 본사에서 개발한 드라이빙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내 고객들이 AMG 차량에 탑승해 안전 운전과 레이싱에 관련한 다양한 주행 기술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다.



AMG 스피드웨이를 달리는 벤츠 차량들의 모습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AMG 본사의 인증을 받은 국내 전문 강사진들이 참가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춰 단계별 맞춤 교육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먼저 'AMG 퍼포먼스'와 'AMG 포 레이디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더불어 벤츠 코리아는 신차 출시를 통해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9년에는 메르세데스-AMG가 독자 개발한 최초의 4-도어 스포츠카 더 뉴 AMG GT 4-도어 쿠페를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제주항공, 누적 매출 9419억 국적 LCC 첫 '1조 클럽' 눈앞

3분기 영업익 378억, 매출 3501억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만형인 제주항공이 17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항공은 올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3501억원과 영업이익 378억원, 당기순이익 311억원을 기록하며 2014년 3분기 이후 17분기 연속흑자를 실현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31.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 6.4%, 3.7% 줄었다. 반면 영업이익률은 연간누적실적보다 높은 10.8%를 기록했다.

누적실적은 매출액 9419억원, 영업이익 958억원, 당기순이익 84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누적실적은 매출액 28.2%, 영업이익 14.3%, 당기순이익 31.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10.2%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은 3분기 실적을 감안, 올해 국적 LCC 최초로 '1조 클럽'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은 이 같은 실적 성장의 이유를 경쟁사 대비 공격적인 기단 및 노선 확대 등 선제적 투자에서 찾았다. 보유항공기를 1분기에 1대, 2분기에 2대, 3분기에 3대 등 총 6대의 항공기를 도입하며 경쟁사 대비 공격적으로 기단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요노선에 대한 증편과 함께 신규노선 개발 역시 가장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양성운 기자

LS전선, 오만 광대역 통신망 사업자 선정

AIB 첫 통신망 차관 사업 참여
1단계서 최소 수백억 매출 확보

LS전선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첫 통신망 차관 사업에 참여한다.

LS전선은 오만의 광대역 통신망 구축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만 정부의 주도로 국영 통신사인 OBB(Oman BroadBand)가 국가 최초로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1년까지 수도 무스카트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1단계와 2030년까지 지방으로 확대 구축하는 2단계로 진행된다. LS전선은 통신망의 설계와 엔지니어링, 광케이블 공급 등을 맡는다. LS전선

은 인근 카타르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을 보유, 경쟁사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LS전선은 약 2000억원 규모로 파악되는 1단계 사업에서 최소 수백억 원대의 매출을 확보, 2단계는 그 이상의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현대차, 고성능 'N' 앞세워 中 시장 노린다

中 국제수입 박람회 참가

고성능 N, 수소전기차 기술력 첫선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N' 브랜드를 앞세워 중국의 고성능 자동차 시장 진출을 예고했다.

현대차는 6일 중국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참가해 고성능 라인업 N과 수소전기차 기술력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5~10일 열리는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는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내 제품 소개 및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해 현지 진출을 돕고자 마련한 행사로 전 세계 28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한국 자동차 기업을 대표해 참가한 현대차는 약 182평(600㎡)의 전시 공간을 마



6일 중국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NECC: National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 수입박람회'에서 토마스 슈미에라 현대차 상품전략본부장 부사장이 N브랜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현대차

련하는 한편 이날 보도발표회를 통해 고성능 N을 중국 시장에 처음 소개했다. 글로벌 고성능차 시장에서 상품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벨로스터 N을 비롯해 국제 모터스포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i20 WRC, i30 N TCR 차량을 전시했다.

벨로스터 N에 탑재해 3면 LED 영상과 사운드로 차량 성능의 역동성을 체험하는 'N 필 더 필링 익스피리언스' 전시물도 준비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N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SK네트웍스, 3분기 매출 6.6% ↓... 상사·에너지 발목

영업익 413억... 전년비 20% 감소
모빌리티·홈케어 분야는 성장세

SK네트웍스는 3분기 매출액이 3조 5300억원, 영업이익이 413억원이라고 6일 잠정 공시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 2.9%, 영업이익 93.7% 성장했지만, 전년 동기보다는 각각 6.6%, 20% 떨어진 성적이다.

실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상사와 에너지 리테일 부문 약세다. 사업별 매출액을 보면 상사가 1조3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에너지 리테일도 12.5% 줄어든 3972억원에 그쳤다. 정보



통신 분야도 전년보다 2.2% 적은 1조 261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에서도 상사는 138억원으로 전년비 33.4%, 에너지 리테일은 무려 76.5%나 적은 20억원을 거두는데 그쳤다. 정보통신분야도 11.1% 줄어든 212억원이었다.

SK네트웍스는 상사와 화학 판매량 감

소 등 글로벌 부문 시황변화로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분기별로는 안정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리테일 분야는 비용 증가로 이익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SK네트웍스는 3분기 실적에서 미래 사업 성장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했다. 바로 모빌리티와 홈케어 분야다.

카라이프 사업 3분기 매출은 2677억원으로 전년보다 18.3% 성장했다. 렌터카 대수를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영업이익은 117억원으로 1.1% 소폭 늘리는데 성공했다.

/김재용기자 juk@

반도체 강호의 고수들이 함께 살아가는 반도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 옛날 강호의 협객들이 비급의 전수를 통해 새로운 무공을 탄생시키듯
SK하이닉스와 1083개 협력사들은 기술과 설비를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기술들이 모여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반도체 세상

SK하이닉스 최고의 경쟁력은 '상생'입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증권 다이제스트



KB증권

연 5% ELS 등 8종 공모

KB증권은 오는 9일까지 CSI HK3지수와 KOSPI2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해 최고 연 5.0%(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able ELS 713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공모한다. 이를 포함한 원금 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6종과 파생결합증권(DLS) 1종, 원금지급형 기타 파생결합사채(DLB) 1종 등 8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KBable ELS 711호(3인덱스 슈퍼리자드 울트라 스텝다우형)는 S&P500지수와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노 낙인(No Knock-In Barrier)구조로 3년 만기에 4개월 단위로 조기상환 기회와 최고 연 4.5%(세전)의 수익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하나금융투자

14일 2019 리서치 전망포럼

하나금융투자는 오는 14일 하나금융투자 본사(여의도역 2번 출구)에서 '2019년 리서치 전망 포럼'을 개최한다.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금융투자리서치센터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포럼은 센터 내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총출동해 경제와 금융 분야를 망라하여 짚어본다. 포럼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부로 진행된다.

포럼 1부와 2부의 '글로벌 자산 전략 포럼'은 500명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2019 전망 자료집을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대신증권

11월 WM아카데미 개최

대신증권은 6일부터 13차례에 걸쳐 서초구 잠원로 반포자이플라자 2층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11월 WM아카데미'를 개최한다.

'11월 WM아카데미'는 요일별로 세무, 부동산, 대체투자, 경공매 등 특정 주제를 선정해 진행된다. 금융투자의 기초부터 세무, 부동산, 경공매 등 재테크 투자전략을 다채롭게 다룬다.

12일, 19일에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세무절세'를 주제로 HNW(High Net Worth) 고객을 위한 부동산 세제의 이해와 증여, 상속 절세방안을 소개한다. 6일, 13일, 20일, 27일은 재테크를 위한 부동산 투자자이드와 부동산시장 전망 등을 설명한다. /김문호 기자

'10억 가진' 그들만의 로또... 당첨땐 차익 8억

강남 '래미안 리더스원' 청약 돌입

1순위 청약 1317가구 중 232가구 중도대출 막혀 현금 10억 있어야 면적·층수별로 12.8억~39억원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래미안 리더스원'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으로 강남권 재건축 일반분양이 줄줄이 밀린 가운데 오랜만에 등장해서다. 분양가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중도금대출이 막혀 최소 1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들(부자)만의 로또'가 될 것이라 지적이다.

삼성물산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의 1순위 청약을 실시했다.

이 아파트는 전체 1317가구 중 232가구를 일반 분양하며, 100% 가점제로만 뽑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이 196가구다. 모든 평형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특별공급 물량은 없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4489만원으로



지난달 31일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 '래미안 리더스원'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채신화 기자

책정됐다. 면적·층수별로 12억8000만~39억원 선이다. 물량이 많은 83~84㎡의 분양가는 15억7000만~17억3000만원에 형성됐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6억~8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재건축 완료 후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인근 '래미안서초에스티지S'는 전용면적 84㎡ 20억~21억원, 전용면적 111㎡ 25억~26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래미안

리더스원이 향후 인근 시세 만큼 가격이 오른다고 가정하면 일반 아파트 1채 수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래미안 리더스원에 대한 '로또 청약' 기대감이 높은 분위기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을 이례적으로 평일인 수요일에 개관하고 5일간 운영했는데, 누적 방문객이 5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이 막혀 '그들만의 로또'가 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아 입주 시까지 계약금 포함 분양 대금의 80%를 납부해야 한다. 분양가가 가장 낮은 59㎡A 4층(12억6000만원)의 경우 10억8000만원, 가장 높은 238㎡(39억원)는 31억2000만원의 자금이 있어야 한다.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을 시도하려는 '현금 부자'의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지난달 31일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된 견본주택에서 만난 박 모 씨(60)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청약 통장을 안 쓰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현재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 전세를 처분하면 현금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현금 부담 때문에 실제 청약경쟁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흔치 않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만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 청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청약 마감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국산 기술 ‘항체신약 항암제’ 세계시장 공략”

IPO 간담회

파맵신

12~13일 청약거쳐 21일 코스닥상장 타니비루맵의 美 임상 2상 등 추진

항체치료제 개발 전문바이오기업 파맵신이 이날 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파맵신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2, 13일 청약을 받은 후 오는 21일 코스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진산 파맵신 대표이사는 "이번 상장으로 타니비루맵의 미국 임상 2상과 글로벌 병용투여 임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산 기술로 개발한 항체신약 항암제로 세계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맵신은 자체 구축한 완전인간항체 의약품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현재 임상개발 단계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고 있



6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진산 파맵신 대표가 기업설명을 하고 있다. /파맵신

다.

국산 1호 항암 항체신약 후보물질로 알려진 타니비루맵은 신생혈관 생성을 차단해 종양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신약후보물질이다. 유 대표는 2001년 LG생명과학(현 LG화학 생명과학사업

부)에서 시작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2013년 국내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완료했고, 지난해 호주에서 재발성 악성 뇌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마쳤다.

유 대표는 "타니비루맵과 유사한 작용 기전의 경쟁의약품에서는 고혈압, 위·장·질 천공, 장내출혈, 단백뇨 등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투약에 한계가 있었으나 타니비루맵은 임상결과 그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아 높은 안전성을 입증했다"며 "특히 호주 임상 2상에서는 기대수명이 4개월 미만으로 알려진 재발성 뇌종양 환자들 가운데 25%의 환자들에게서 수명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타니비루맵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임상 2상 후 상용화가 가능하다. 또 글로벌 제약사 머크(MSD)와 타니비루맵과 키트루다(Keyt

ruda)의 병용요법 공동임상연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타니비루맵 기반의 이중·다중표적 항체 등의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타니비루맵에 표적을 추가한 이중항체 후보물질 연구도 진행 중이다.

신생혈관 억제제 내성 환자에게 과발현되는 'Tie-2'를 동시에 표적하는 'PM C-001'이다. PMC-001은 동물실험 결과 타니비루맵 및 아바스틴보다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 타니비루맵 이후 차세대 신약후보물질로 키워갈 계획이다.

지난해 매출 2억원에 영업손실 38억원을 기록한 파맵신은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4만3000원~5만5000원으로 총 80만주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된 최대 440억원의 자금은 타니비루맵의 미국 임상 2상과 글로벌 병용투여 임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상장예정인 파맵신의 대표주관사는 KB증권이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금호산업, 3분기 누적 영업이익 323억 기록

지난해비 23% 증가... 순익 302억

금호산업이 6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3분기까지 32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23% 증가한 수준이다.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884억원, 순이익은 302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4%, 73% 늘었다.

신규착공 현장의 증가로 원가율이 대폭 개선된 효과가 반영됐다고 금호산업 측은 설명했다.

차입금은 지난해 말 대비 약 370억원을 상환해 1803억원까지 낮아졌다. 연말에는 영업실적 등 반영으로 차입금 잔액이 1700억원대로 축소될 전망이다.

신규수주는 1조6449억원을 달성했다. 수주잔고는 5조9300억원을 기록했다.

금호산업 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물량이 많아 연말까지 신규수주가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내실 있는 신규수주와 수익성 개선을 통해 펀더멘탈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대우건설 인수 손해배상 승소 효과가 반영될 시 500여억원의 추가 이익 증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선된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이익 제고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기업 가치를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미래에셋대우, 제너럴바이오와 맞손

코스닥 상장 위한 IPO대표주관계약

미래에셋대우는 6일 사회적기업 제너럴바이오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IPO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너럴바이오는 2019년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어셀라, 씨케이 등 자사브랜드를 바탕으로 친환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을 통해 최근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감으로써 2019년 상반기 예비심사 청구, 2019년 연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 조웅기 대표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흔치 않게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실현을 이뤄내고 있는 제너

럴바이오의 다음 단계가 기대된다"며 "성공적인 상장이 될 수 있도록 미래에셋대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너럴바이오 서정훈 대표는 "제너럴바이오의 기업 철학은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환경 책임을 준수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통해 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인간 중심의 경영 철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장 진입, 매수 적기 아냐”... 신규청약은 해볼만

민스키 모멘트 시작되나 (버블붕괴 예고 경제학)

내집 마련

서울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보여 정부공급 대책 체크해 내집 준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주저앉았다. 일부 지역에선 호가가 수천만원씩 떨어지는 등 하락장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주택 시장이 요동치자 수요자들은 매수 시점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 시기를 연말 이후로 미루라고 조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6일 “최근 주택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며 “연말 정부의 정책 등을 검토하고 내년쯤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 투자지원센터장은 당장은 주택 매수 적기가 아니라고 봤다.

안 센터장은 “정부의 규제 등으로 기존 주택 시장이 조정되고 있어 지금은 관망



(왼쪽부터)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양지영 R&C연구소장,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에도 시장이 조정되는 번복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매 외에는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도 내년까지 주택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양소장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가시화 등에 따라 내년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매물도 적체되면 시장이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느긋하게 내년까지 지켜봐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청약 시장에 대해선 입지가 좋고 자금 여력이 있다면 재빨리 잡으라고 조언했다.

안 센터장은 “신규 분양은 가격도 어느 정도 제어된 상태라 때문에 입지가 좋으면 언제든지 청약할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양소장은 “청약의 경우 입지가 뛰어나 청약 가점 등의 조건이 맞다면 여전히 분양가 메리트(장점)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주택 시장도 약세 국면이 이제 막 시작인 만큼 내년 하반기 정도에 매수를 생각해볼 수 있다”며 “11월 중순 이후부터 청약 규제가 본격화되면 풍선효과가 생길 텐데, 이때 여력이 되면 막차타기를 노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연말 이후에 청약 기

회가 몰릴 것이라 전망이 우세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를 높여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공급 정책을 검토해본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잡으라는 의견이 있었다.

윤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연말까지 두 번 정도의 공급 대책을 내놓는데 정책 내용을 보고 내년 상·하반기에 들어가면 된다”라며 “정부에서 공급하는 단지의 시점, 지역 등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무주택자는 연말에 신혼희망타운 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공급 등의 이슈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 홀드했다가(멈췄다가) 분양시장을 노리는 게 좋다”고 했다.

함랩장은 “유주택자의 경우 11월 말부터 1주택자도(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시장을 통해 갈아타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변수를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정도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출 규제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이고 2주택자 이상자는 사실상 주택담대가 막힌 상태”라며 “전세자금 정도는 준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경상수지 79개월 연속 흑자... 여행수지 적자 줄어

한은, 9월 국제수지 발표

규모는 줄었지만 양호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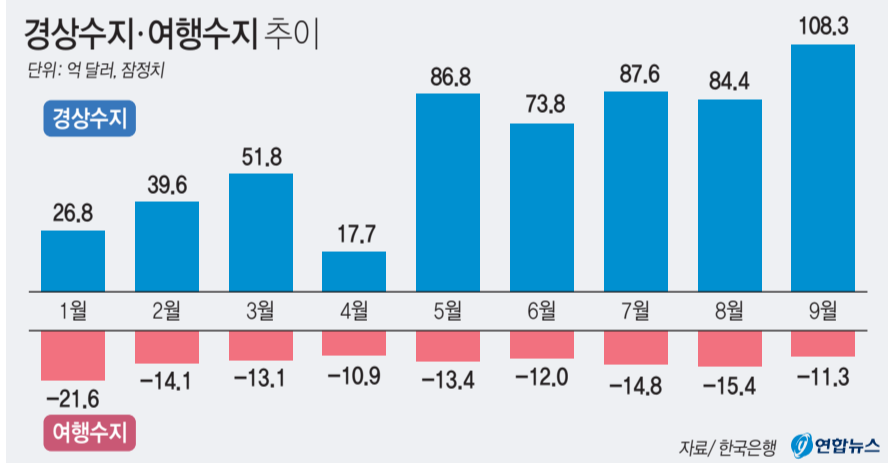
우리나라 9월 경상수지가 7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여행수지는 중국인과 일본인 입국자 수 증가로 적자 폭이 줄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18년 9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108억3000만달러 흑자로 2012년 3월 이후 79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22억9000만달러)보다는 14억3000만달러 줄어 들었다.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의 흑자 규모가 축소된 영향이다.

수출과 수입의 차를 보여주는 상품수지는 132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억8000만달러)보다 17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 8월(112억4000만달러)보다는 20억달러 증가했다.

수출은 510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9월(540억7000만달러)보다 5.5% 감소했다. 수입도 378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9월(391억만달러)보다 3.2% 감소했다. 수출



과수입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3개월 만에 감소했다.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 수 축소와 기저효과로 수출이 감소했다.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은 “통관기준 9~10월 평균 수출 증가율은 5.7%로 지난해 증가율인 6.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은이 전망하는 연중 경상수지 700억달러 흑자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수지는 25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28억8000만달

리)보다 적자 폭이 3억6000만달러 줄었다. 이중 운송수지는 3000만달러 흑자로 지난 2016년 8월(2000만달러) 이후 25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세계물동량 증가와 해상운임 상승으로 해상운송수지 적자 폭이 줄었다”면서 “입국자 수 증가로 인한 항공여객수입이 늘면서 항공운송수지도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9월 여행수지는 11억3000만달러 적자로 적자 폭이 지난해 9월(-13억1000만달러)보다 1억8000만달러 줄었다. 8월(15억

4000만달러)보다도 적자가 4억1000만달러 줄었다.

중국인 입국자는 4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4% 늘었다. 일본인 입국자도 2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인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입국자 수 증가가 지속하는 가운데 출국자 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본원소득수지는 6억7000만달러로 흑자 규모가 지난해 9월(12억5000만달러)보다 5억8000만달러 줄었다. 이전소득수지는 5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은 97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124억1000만달러)보다 26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8월(72억8000만달러)보다는 24억5000만달러 늘었다.

직접투자는 21억7000만달러 순자산을 기록했다. 주식과 채권 등 증권투자는 91억3000만달러 순자산으로 전년 동월(99억5000만달러)보다 줄었고 지난 8월(14억9000만달러)보다는 늘었다.

/김희주 기자 hj89@

대형 대부업자 기준 120억서 100억으로

오는 13일부터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이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아져 규제의 대상범위가 넓어진다. 또 노령·청년층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를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범위를 축소하는 등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위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또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전 연령 300만원 이하에서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이하로 대출 범위를 줄인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 때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를 현행 대표이사 및 업무총괄사용인에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만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으로 확대해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을 높인다.

또한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탈을 막기 위해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 때 최저자본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현행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매장서 QR코드 위변조 방지 필름 부착해야

QR코드(Quick Response·사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바코드) 이용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 제고를 위해 가맹점주는 앞으로 매장 내 결제 QR코드에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하는 등 위·변조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가맹점 탈퇴 또는 폐업시에는 QR코드를 파기하고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하는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해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 QR코드 방식을 추진함에 따라 당국은 QR결제 표준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QR코드 발급시에는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 개선하고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한다. /유재희 기자

수출입銀 “4분기 수출 지난해보다 9% 상승”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6일 올해 4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내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이 이날 내놓은 ‘2018년 3분기 수출 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에 따르면 향후 수출경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출선행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분기에는 무선통신기기가전의 경쟁 심화 및 현지 부품 조달 비중 증가 영향으로 아세안,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부진했다. 그러나 제조업 경기 호조와 인프라 사업 확대로 중국, 대만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 흐름

을 이어갔다.

수은 관계자는 “4분기에도 수출대상국 경기 안정세와 유가 상승세 유지 등 수출 여건이 우호적이고, 작년 기저효과도 있어 수출 증가폭은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수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수출 호조 지속으로 2018년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6% 내외 증가해 사상 최초로 6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크레딧 리스크’ 남의 일... 신용등급 오른 ‘1%의 보석기업’

금호석화·한화·이랜드에 삼성전자까지... ‘군계일학’

9월 말 신용등급 상승기업 20곳 구조조정·사업구조 변화 한 몫

‘불황·절벽...’

최근 몇 년간 세계 경제에 대한 진단은 그야말로 암울했다. 각 국가가 저성장의 칼바람에 꺼져가는 경제의 불쏘시개로 꺼내든 것은 보호무역과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었다.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한국경제에는 큰 장애물이었다. 2%대 저성장에 갇힌 한국경제는 소위 ‘늪’에 비유되곤 한다.

덕분에 현대차그룹은 20년 만에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경제 상황과 기업환경이 더 나빠진다면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으로 시장에서는 한 겨울을 버텨내고 환골탈태한 기업에 주목한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수익성 위주로 사업구조를 일찌감치 탈바꿈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시작한 기업들이다. 신용등급이 이를 가장 잘 말해 준다.

◆반도체의 힘, 삼성전자 ‘군계일학’

6일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업체에 따르면 3분기 현재 긍정적 신용등급 전망을 받은 기업은 19개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실적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6월 삼성전자의 선순위 무담보채권 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사옥내 홍보관에 있는 반도체 홍보 전시물. /연합뉴스

학업종이 4개 기업(여천NCC·㈜한화·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건설업종 3개(GS건설·태영건설·한라), 전자업종 2개(SK실트론·오성첨단소재) 등이다.

연초에 비해 9월 말 현재 신용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20곳이다.

그룹별로는 화학업종 비중이 큰 한화그룹이 가장 많은 4개 계열사(한화케미칼·한화중합화학·한화토탈·한화손해보험)의 등급이 상승했다.

적극적 구조조정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이랜드그룹도 이랜드리테일, 이랜드

월드 등 2개 계열사의 단기등급이 상향됐다. OCI그룹은 수익성과 재무 안정성 개선 추세가 반영돼 OCI와 군장에너지의 등급이 상승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반도체다. 먼저 리딩기업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17조원을 돌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갤럭시노트9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반도체가 견인한 결과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6월 삼성전자의 선순위 무담보채권 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가 삼성전자

의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지난 2005년 7월 이후 13년 만이다.

글로벌리 큐엔 무디스 선임연구원은 “주요 사업부문에서 기술력과 시장지위 측면의 리더십 강화에 따른 영업 안정성 개선과 탄탄한 현금흐름, 대규모 설비투자, 시장의 경기 변동성에 대한 매우 우수한 완충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등급을 부여하는 한국 주요 산업의 비금융 기업들이 세계 경제 성장과 낮은 유가를 토대로 올해 양호한 영업실적을 거둘 것”이라며 업종별로는 테크놀로지(기술)와 철강, 정유, 화학이 양호한 업황을 유지하고, 자동차와 유통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무디스는 진단했다.

◆위기때 더 빛난다, 투자가치 매력적

이들 기업이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곳곳에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블룸버그는 “중국경제 부진이 심화되면서, 세계경제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이 중국의 경기하강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이며,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도 부정적 영향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들은 벌써부터 발을 빼고 있다. 막

을게 없어서다. 연초 이후 10월 말 현재 국내 크레딧의 평균 투자 성과는 3% 내외에 불과하다. 지난해 7-8월 45%까지 치솟았던 회사채 수요예측 경쟁률은 365%까지 낮아졌다.

NH투자증권 한광열 연구원은 “크레딧 신용 스프레드는 연말까지 확대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로 다가갈수록 투자 수요는 감소하고, 미국의 중간선거를 비롯해 유럽의 정치적 이슈, 글로벌 무역전쟁 심화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 환경이 좋지 않고, 한국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우려’인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유리할 전망이다.

투자측면에서도 신용등급은 활용 가치가 있다. 신용등급 상향은 업황 개선에 따른 실적회전과 함께 지속적 구조조정을 통해 차입금이 감소해 현금흐름이 호전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증권 박태근 연구원은 “기업 펀더멘털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어 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다”면서 “‘A’ 등급 기업은 업황 우려가 제한적인 섹터에 한해 선별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현대중 대표이사에 한영석·가삼현 사장

현대중공업그룹 사장단 인사

현대중공업그룹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 계열사 사장단 및 현대중 사업본부 대표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그룹내 조선계열사와 정유 부문을 대표하는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신규 선임하는 등 주력 계열사 대표이사에 대한 세대교체 인사가 단행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6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공동 선임 사장에 한영석 현대미포조선 사장과 가삼현 현대중공업그룹 선박해양영업본부 사장을 내정하는 등 주요 계열사 사장단 및 현대중공업 사업본부 대표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영석 선임 사장은 충남대 기계공학과 출신으로 현대중공업에서 설계 및 생산본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6년 10월부터 현대미포조선 사장으로 재직해왔다. 부임 후 현대미포조선을 3년 연속 흑자로 이끌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그룹은 설명했다.

가삼현 선임 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중공업 선박영업본부에서 근무했다. 런던지사장, 서울사무소장 등을 거쳐 2014년부터 그룹 선박해양영업대표를 맡아왔다.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사장에는 현대중공업 신현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내정됐다. 신 사장은 충북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계약관리, 의장, 시운전 담당을 거쳐 군산조선소장을 지



한영석 현대미포조선 사장 / 가삼현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영업본부 사장

냈고, 2016년 11월부터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사업대표를 맡아왔다. 다양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사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로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이상균 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한다. 이 사장은 인하대 조선공학과를 나와 현대중공업 선박건조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현장 전문가다.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에는 강달호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내정됐다. 강 사장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생산부장, 중앙기술연구원장을 지낸 뒤 2014년부터 안전생산본부장을 맡아왔다.

정명립 현대일렉트릭 대표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중공업의 사업본부 대표에 대한 인사도 함께 이뤄져 해양플랜트사업 대표에 박준성 전무, 엔진기계사업 대표에 이기동 전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해 선임됐다.

현대중공업지주 로봇사업 대표 자리는 현대중공업 서유성 전무가 맡는다.

/양성운 기자 ysw@



올해만 6번 강도... 100억원대 횡령사고...

범죄 표적된 새마을금고, 안팎으로 ‘탈탈’

경비인력 보유율 13.9% 그쳐 관리·감독 법안 국회서 ‘쿨쿨’ 개별법안으로 의무사항 아냐

새마을금고가 안팎으로 털리고 있다. 보안에 취약해 강도의 표적대상이 되고 있는데다 직원들의 비리와 횡령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자금수준에 맞는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2년째 잠자고 있는 상태다.

6일 통계청이 제공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국 1315개소(지역금고·직장금고 포함)로 지난 2016년(1321개소)보다 6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지난해 1927만명으로 2016년 대비 0.9%(1910만명) 늘었고, 총자산은 2017년 기준 150조5000억원으로 2016년 대비 8.7%(138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고 수는 감소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늘면서 자산도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늘어나는 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 올해 6번째 강도의 표적이 된 새마을금고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안전부 확인결과 전국 새마을금고 중 경비인력을 배치한 곳은 13.9%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직원이 100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제기됐고, 2013년 MG손보 인수 과정의 특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새마을금고가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은행의 경우 지주사와 본점 지점별로 다양한 감사시스템을 통해 상시 정밀 감독이 이뤄지지만 아무래도 새마을금고는 그렇지 않다보니 허점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상호금융기관의 감독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확인한 결과 새마을금고만 주무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협의로 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주무부장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회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에게 중앙회

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

반면 농협(농업협동조합)과 수협(수산업협동조합)은 주무부 장관의 감독권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감독이 가능한 이원화된 감독체계를 갖고 있다. 신협(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리·감독에 대한 법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법안은 총 6건이었지만 수정 가결된 건을 제외하곤 모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의 법안은 지난해 2016년 이후 2년째 계류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보안시스템 및 안전시설물, 청원경찰 등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을 통해 전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지시를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개별법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새마을금고마다 보안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www.pdna.co.kr

눈부신 어린 피부 “비밀은 DNA”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 - 피디엔에이 크림

피부의 새로운 에너지, 바다 송어 추출 *sodium DNA 함유

메마른 피부는 안티에이징 적신호. 연어과 어류인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sodium DNA 1000ppm, 아데노신 등 7가지 피부보호 성분이 유수분밸런스에 도움을 주고 피부 자생력을 강화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 sodium DNA, 아데노신, 병풀/어성초/치아씨/백년초열매 추출물, 올리브 오일 등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경험해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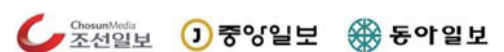
찬바람이 불어도 부드럽고 생기있게 빛나는 매끄러운 피부. 물광피부와 동안 관리 효과를 동시에 경험해 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은 풍부한 영양감. 짙 찬 수분감으로 주름개선을 도와 피부에 새로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국내 주요 일간지에 동안크림으로 보도,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pdna.co.kr에서 확인하세요.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넥슨, 수준높은 신작 14종 공개... “지스타의 스타된다”

‘지스타 2018’ D-8

넥슨 부스 콘셉트·14종 출품작 공개
역대 최대 ‘시연기기 623대’도 마련
넷마블 블소 레볼루션 등 게임 시연
지스타 최초공개 신작 ‘A3’로 확정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8’을 준비하기 위한 게임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하반기 신작 출시도 가시화돼 게임 업계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6일 넥슨은 서울 역삼동 르메르디앙 서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스타의 부스 콘셉트와 총 14종의 출품작을 공개했다. 넥슨은 최대 규모인 300부스를 마련하고 PC 온라인 및 모바일 신작 14종



이정헌 넥슨 대표가 '지스타2018' 프리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넥슨

을 출품해 ‘물랑 공세’에 나선다.

이정헌 넥슨 대표는 “올해 넥슨은 지스타에 모바일 게임 11종, PC 게임 3종으로 총 14종을 출품한다”며 “수준 높은 신규 지식재산권(IP)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4년 연속 ‘지스타’에 참가하는 넥슨은 올해의 메인 슬로건 ‘Through Your Life’를 첫 공개하기도 했다. 출품 형태별로는 시연 출품작 11종, 영상 및 이벤트 출품작 3종으로 300부스를 채운다. 넥슨의 300부스는 ▲시연존 ▲NEXON STUD

IO ▲이벤트존으로 구성된다. 시연존에는 역대 가장 많은 시연기기 623대(모바일 543대, PC 80대)를 마련했다.

기대작으로는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트라하’가 꼽힌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트라하는 100여명 규모의 개발사 모아이게임즈가 3년째 게임 개발 중이다.

넥슨의 과거 PC온라인게임도 모바일 게임으로 부활한다. 1996년 출시한 넥슨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를 비롯해 ‘크레이지 아케이드’, ‘테일즈위버’, ‘마비노기’ 등이 베일을 벗는다. 이밖에 자체 개발작인 해양 어드벤처 게임 ‘데이브’, 네 개의탑’ 등도 선보인다.

지스타 메인스폰서인 에픽게임즈는 B2C관에 총 100 부스를 마련해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PC, PS4, 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포트 나이트’를 시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넷마블은 100부스 규모의 넷마블관에서 모바일게임에 최적화된 260여대의 시연대를 마련한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세븐나이츠2’,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울스타’ 등 대형 IP 모바일 게임 3종과 지스타에서 최초 공개하는 미공개 신작 ‘A3: Still Alive’가 확정됐다.

카카오게임즈는 B2C관에 총 100부스 규모로, 자사 대표 PC 게임 중 하나인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를 전시한다. 야외 광장에서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IP를 활용해 개발한 신작 모바일 레이싱 게임 ‘프렌즈레이싱’ 부스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게임즈 B2B 부스도 운영된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지스타에서 ‘무한한 상상’을 슬로건으로 삼고 B2B 전시관에 40부스로 참가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단말기 완전자급제 위해 유통구조 완전 분리해야”

한국당 김성태 의원 기자간담회

독과점 구조·리베이트 경쟁 등 분석
“단말기-통신판매 물리적 분리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단말·통신 유통 구조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완전 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 발의할 예정인 완전자급제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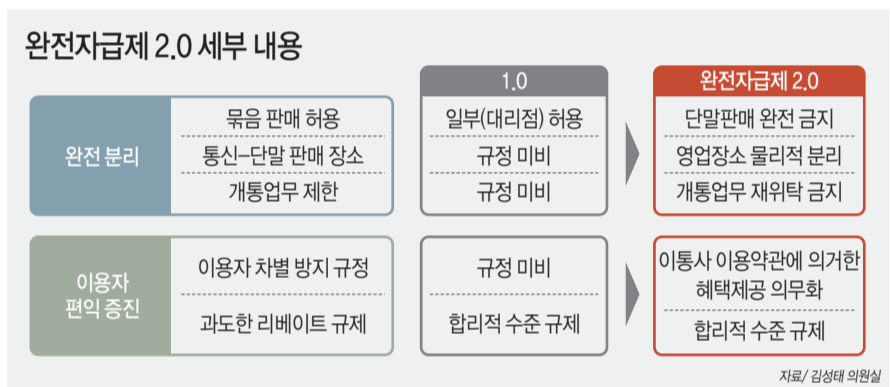
김 의원은 현재 단말기 유통 구조는 4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말 독과점 구조와 과도한 리베이트 경쟁, 이에 따른 이용자 차별과 요금·단말 강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등 이용자 피해까지다.

완전자급제 시행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도 높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이 지난 1년간 온라인 댓글을 조사한 바에



자료/ 김성태 의원실

따르면, 긍정의견이 53%로, 부정의견(11%)을 압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9월 발표한 설문결과에도 완전자급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72%가 긍정, 10%만이 부정이었다고 소개했다. 통신과 단말기 등 관련 업계도 자급

제 시행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단,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말-통신 시장을 분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단말과 통신 영업장소를 철저히 떨어뜨려야 한다는

뜻이다. 장려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단말기 유통 구조가 관성에 젖어왔음을 강력한 규제 이유도 들었다. 법으로 분명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단통법’과 같이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다. 내년까지 자급제폰을 2배로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도 같은 이유로 비판했다.

기대 효과로는 가계 통신비 인하와 이용자 선택권 확대 및 강화를 예상했다. 외산 단말기 국내 진출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 시장 재편도 전망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현행 유통 방법에 익숙해진 만큼, 엄격한 규제로 새로운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단말기와 통신 판매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련 김 의원은 앞으로 입법공청회 등 절차를 거친 후 내년 2월께 상임위에 올릴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K뷰티·패션 등 글로벌 판로 아azon이 돕는다

아마존 기자간담회

한국 고유 제품 증대·입점 다양화 지원

글로벌 유통 공룡 ‘아마존’이 국내 다양한 업종의 셀러(판매자)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다. 전세계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개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량 증대와 브랜드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6일 한국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하 아마존)은 서울 을지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성과와 내년 한국 셀러들의 해외 진출·판매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한국에 전담팀을 구성한 아마존은 한국 셀러들이 아마존의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그들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셀러들은 글로벌 셀링을 통해 전 세계 3억 이상의 활성화 고객과 수백만 기업 구매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아마존은 현재 전세계 13개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149개의 주문이행센터를 통해 185개국과 지역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6일 서울 아마존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준모 한국 아마존 글로벌 셀링 대표가 올해 사업성과와 내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박준모 한국 아마존 글로벌 셀링 대표는 이날 “국경 없는 온라인 수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역 시대를 맞아, 아마존 글로벌 셀링의 한국 팀은 제조사, 브랜드 보유 기업, 스타트업 등 여러 국내 셀러들이 기존의 수출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아마존 글로벌 셀링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D2C(Direct to cus

tomers)’ 모델을 도입해 온라인을 통해 전세계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D2C는 셀러가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과거 대기업 판매자가 다수였다면, 현재는 다국적 기업, 중소기업으로 판매자가 다원화됐다. 지난해 상반기 아마존에서 판매된 중소기업 제품 개수만 2억개가 넘으며, 판매중인 제품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반 이상을 차지한다.

박 대표는 “D2C가 유통 트렌드로 자리 잡은 현재 판매자가 갖춰야할 역량은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의사결정 ▲유연한 제품 디자인/생산 ▲브랜드 구축 및 관리 ▲밸류 체인 통합 그리고 ▲새로운 판매 채널이 필요하다”며 “그 새로운 채널이 바로 ‘아마존’”이라고 말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형태를 보면 41%가 아마존에서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까지 합니다. 그리고 28%가 구글에서 검색하고 아마존에서 구매하죠. 이는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단순한 판매 채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얻는 채널로도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박준모 한국 아마존 글로벌 셀링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 아마존 글로벌 셀링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박 대표는 “아마존은 판매 채널을 넘어선 정보 공유의 채널”이라고 전제한 후 아마존에서 판매 성공신화를 이룬 업체들도 함께 소개했다.

박 대표는 향후 전략으로 ▲한국 고유 제품 증대(K-뷰티·패션, K-팝 등 한국만의 고유한 제품/브랜드 증대) ▲입점 기업의 다양화(유통사, 브랜드, 제조사 등 다양한 회사들의 입점 및 브랜드 구축 지원, 연속적인 판매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집중) ▲마켓플레이스 확장(미국에 치우쳐있는 사업을 유럽/일본으로 확장 및 매출 증대 지원) ▲입점지원/교육 확대(정부기관, 업종별협회, 외부 서비스 사업주들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먼저, 아마존은 국내 셀러들의 고유한 제품과 브랜드를 전세계 고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국의 ‘뷰티’와 ‘패션’은 아마존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카테고리이며, 국내 브랜드 보유 기업들은 올해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브랜드 보유 기업들에게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브랜드를 구축, 강화,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조사들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대체복무, 공공서비스·강한군대 ‘두 토끼’ 묘안 없을까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中) 합리적 대체복무

국방부의 대체복무안 마련에 시민단체, ‘또다른 처벌’ 주장
봉사·경찰근무·치안서비스 등 해외선 非 징벌적 사례 많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교정 시설에 한정하는 정부안이 알려지면서 ‘징벌적 대체복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공공서비스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55개 시민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합리적 대체복무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 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에 골자라며 “병역 거부자들에게 또다른 처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의 국제 기준은 현역병의 1.5배다.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를 징벌적 성격으로 규정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년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두 배로 정한 점을 비판했다. 유럽평의회도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인 대체복무 기간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회원들이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징벌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해외선 공공서비스 주요 ‘대체복무’로 채워

한국에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한 나라들은 수해지역 복구를 포함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해왔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하기 이전까지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비율이 각 50%였다. 독일의 대체복무 범위는 병원과 요양원, 재해구호와 개발봉사, 해외봉사자와 자원봉사, 경찰근무 등으로 다양했다. 복무 기간은 현역과 같은 9개월이었다. 다만 대안적 대체복무인 재해구호는 6년, 개발봉사 2년, 해외봉사 11개월, 자원봉사 12개월이었다.

그리스의 병역거부자는 비무장 군대 내 복무 또는 사회복무에 소집된다. 비무장 군대 복무의 경우, 무기사용이나 무기 휴대훈련을 제외한 책무만 이행한다. 대

체복무는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과 공익 시설에서 이행한다. 비무장 군복무를 포함한 대체복무는 아테네와 테살로니카, 복무자의 출생지나 거주지, 기타 도시지역 소재 기관과 시설은 배제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대체복무한다. 크레타의 만성질환병원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들은 주 7일 근무에 크리스마스 휴가도 없다는 연구가 있다.

대체복무 관할은 국방부가 한다. 전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시 국방부장관이 대체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부대에 소집돼 비무장복무를 수행한다.

그리스의 비무장군대 내 복무는 18개월로 현역 12개월의 1.5배였지만, 나머지 대체복무 기간은 23개월이었다. 지금은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의 유럽사회권

헌장 위반 지적에 따라, 1.5배에 조금 못 미치게 줄였다고 심 연구원은 설명했다.

대안은 대체복무 범위를 크게 치안과 사회 서비스 분야로 나뉜다. 치안 분야는 경찰역과 소방역으로 구분된다. 경찰역은 기동보안과 순찰, 교통보조와 수용소 경비, 교정시설 경비 등이다. 소방역은 재난 시 구조와 환자 처리 등 보조 업무를 맡는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독거노인과 상병 유공자, 심신장애인, 국민 보건 등을 보조하는 사회역 ▲환경 조사와 검사, 자원재생과 수자원 관리, 동식물 보호와 기상관측 등을 보조하는 환경보호역 ▲산간도서 지역의 의료 보건, 방역과 공공 위생 보조업무를 하는 의료역 ▲산간도서 내 학교 교육과 교내 안전 협조, 중퇴생 지도 등을 보조하는 교육서비스역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대안의 대체복무자들은 문화서비스·사법행정·외교·토지측량·경제안전·체육·공공행정·관광서비스 등에서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대안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22개월)과 동일하다. 올해 모병제로 전환한 대안은 2021년 대체복무가 사라진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7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와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기간은 군복무기간보다 1.5배 길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의 1.5배로 하되, 시간이 지나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점차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보고서에서 “도입 초기에는 현행법상 최장기 대체복무(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감안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감정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36개월 복무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점차 단축하여 군복무의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 ‘강한군대’ 만들기 자극

현역 외 전환복무에 속하는 현행 대체복무는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이 24개월,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장병전담의·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은 3년간 복무한다.

문제는 이들 전환복무의 경우 4~9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쳐야 해,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인 ‘집중거부’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기존 대체복무제는 병역법상 병무청이 감독하며,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병무청이 정한 제복을 입어야 한다. 복무 후에는 예비군으로서 집중 훈련을 이어 가야 한다.

대한변협은 보고서에서 “합리적 대체복무의 도입은 이러한(고령화와 사회복지 수요, 메르스 같은 국가적 재난 등) 문제들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입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재와는 달리, 대체복무가 마련되면 군장병 처우에 대한 개선 및 인권보호를 추진할 구체적인 동기가 마련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군복무의 자발성을 강화해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노동부 73개기관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둥구밭’을 비롯한 73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모두 2089곳으로 늘었다.

신규 인증 기관 가운데 17곳(23.3%)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취업담당자 초청 연수

노사발전재단은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라오스 송출기관과 취업교육기관 담당자들을 초청해 단기연수를 실시한다. 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재단이 라오스 노동자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18년 2월 6일부터 라오스 취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단기연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도 및 외국인력 정책 등에 대한 이해 향상과 유관기관 현장 방문을 통해 라오스 인력송출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송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연수단은 재단 외국인취업교육 참관 및 화성고용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외국인력상담센터, 체류지원, 귀국지원 등 고용허가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임종석 “일자리 상황에 책임감 느껴… 대책마련 전력”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북, 실질적 진전있게 총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인구·산업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지만 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일자리 양과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 일정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성과를 낸다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 함께 나온 정의용 청와

대 국가안보실장은 “남과 북, 북미 간 상호 신뢰 속에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미국과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남북 간 합의와 이행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과감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고, 최고지도자가 세계 언론 앞에서 직접·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약속의 전면적인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농식품부,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정부가 이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의 안정적 공급과 김장 비용 경감을 위한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추는 김장 수요가 적은 이달 상·중순 출하조절 시설에 1000톤 상당을 가져장하고 1000톤 상당을 수매 비축해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또한, 계약재배 물량 4만4000톤을 활용해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 공급량을

평년 대비 20% 확대한다.

무는 김장철 출하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단계적 수매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1만7000톤을 활용한 분산 출하를 통해 적정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가격이 높은 고추는 정부 비축물량 1900톤을 매주 400톤 상당 방출해 가격 관리에 집중한다.

마늘은 농협 및 정부 비축물량을 통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방

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할인판매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알뜰구매 정보를 제공해 가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상설 직거래 장터와 흡소핑 등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영흡소핑을 통해 특별 판매전도 개최한다.

온라인과 SNS, 스마트폰 앱, 라디오 등 다양한 경로로 알뜰 장보기, 장터, 할인판매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대기업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도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세종=최신용 기자

金기자의 一問日答 김 세 종 아셈중기친환경혁신센터 부이사장

“中企 돕는 해외 지원기관 집적화해야 시너지 발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글로벌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덤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해외시장이다. 특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정책이 수도 없이 많지만 막상 활용하려면 쉽지 않을 뿐더러 벽도 높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중소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아셈중기친환경혁신센터(ASEIC·아섹) 김세종 부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해외시장을 끊임없이 노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국내에만 사업이 쏠리면 경기 변동이나 제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외비중이 30% 정도인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은 완충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것은 이때문이다. 한 때 중국에만 생산이나 판매를 집중했던 우리 기업들이 ‘사드(THAAD)’에 휘청거린 것이 대표적인 예다. 추가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외로 나가야 한다. 기업들은 글로벌 전략을 잘 짜고, 정부나 지원기관들은 기업들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현지에 나가있는 여러 지원기관들을 한 곳으로 집적화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세종 부이사장에게 우리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섹’은 이노비즈협회장이 당연적으로 이 사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 업무는 부이사장이 총괄하고 있다.



김 세 종 아셈중기친환경혁신센터 부이사장 /김승호 기자

“우리 기업을 돕기 위해 해외에 나가있는 수 많은 지원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흥미롭다.

“해외에 가 보면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많은 기관들이 진출해 있다. 일부는 집적화가 돼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이젠 지역(거점)별로 ‘한국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 이들 기관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기관끼리의 협력이 극대화되고, 부족한 인력의 단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해외에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두고 있는 KOTRA의 역할도 중요하다.”

“물론이다. 말한대로 해외에 가장 많이 나가 있고 조직화돼 있는 것이 KOTRA의 장점이다. 하지만 코트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는 한 곳에 모여있는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KOTRA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계속 뒤아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앞서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질 때 KOTRA의 거취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참에 KOTRA의 소관 부처를 (중기부로) 옮기는 것도 대응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역할을 잘 하고 있는 KOTRA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기관들이 더욱 중점



을 뒤야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가면 진성바이어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호소한다. 열번 나가야 한 번 정도 (진성바이어를) 만나는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사업은 너무 단기적이고 효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갖고 현지 공관이나 지원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진성바이어를 찾아 필요한 기업들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 해당 국가의 관보를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모아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한국에서 받은 인증이 주요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교차인증’도 더욱 적극 추진해 기업들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이중삼중으로 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사업이 단기적이고 효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공불용자가 대표적이다. 초기 수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집중 지원해 성공시엔

코트라와 협업... 中企 진출길 확대 기관, 진성바이어 적시에 제공하고 인증 통용위한 ‘교차인증’ 추진해야 ‘에스컬레이터 전략’ 글로벌 고도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시엔 원리금을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해주는 것이 성공불용자다. 우리나라는 수출기업의 60~70% 가량이 100만달러 이하다. 이들에겐 지역 및 품목 다변화가 절실한 데 이럴 때 성공불용자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하고 다른 기업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불용자를 받은 후 수출에 실패한 기업에 대해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받지 않는다고 하면 ‘모럴해저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이다.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정부나 지원기관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다. 글로벌 진출의 1차적 책임은 당연히 기업이 져야 한다. 정부 지원을 전적으로 믿을 수도 없다. 기존에 바우처제도가 있었지만 이왕이면 한정된 자원을 기업이 절실하게 원하는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가장관

급 부처로 격상된지 1년이 안 돼서 그런지 산업부가 해외에 파견하는 상무관과 같은 자리가 하나도 없다. 중기부도 일부 자리를 만들어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지역엔 상무관과 같이 중기부의 ‘중소기업협력관’을 뒤아한다고 생각한다. 총영사가 나가 있는 베트남 호치민, 중국 시안, 미국 LA,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에 시범적으로 중기협력관을 두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중소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진행하고 ODA (공적개발원조)나 KSP(지식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현재 5개국에 있는 중소기업 기술교류센터를 인도와 말레이시아 등에 더 추가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파는 것만을 놓고 ‘글로벌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인바운드 글로벌, 아웃바운드 글로벌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시대를 맞고 있고, 온라인 쇼핑이 무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 인바운드 글로벌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일부에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의 신제품, 기술제품에 대해 매달 경진대회를 열어 TV나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매출이 발생하면 면세점 안테나샵을 통해 팔고, 반응이 좋으면 해외에서 파는 ‘에스컬레이터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중소기업 제품을 팔기 위한 인바운드 전략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이 있을까 궁금하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 제품을 살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디자인과 포장,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한다. 입국장 면세점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어 부족한 2%를 이런 부문에서 채워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빼놓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개성공단을 포함해 향후 북한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보나.

“경협 제재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북한 전역을 놓고 범정부적으로 중장기 산업 플랜을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이를 위해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시장을 겨냥해 개성공단과 주변지역을 동북아 생산거점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향후에도 정책을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아섹(ASEIC)이 우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아울러 아섹에 대한 설명도 부탁한다.

“아섹이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의 아젠다 중에서 아세안과 유럽국가의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해주는 조직으로 탄생한 만큼, 정부와 정부간 협상에서 매우 유리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약을 맺어 자카르타에 운영하고 있는 그린비즈니스 기업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기업 10여 곳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은 3년간의 지원을 통해 진출을 넓힐 수 있다. 또 각국이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아섹이 배출권 획득, 친환경 설비 수출 등에 대한 지원이나 컨설팅도 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각국의 관련 정책, 제도, 동향 등을 모아 웹진을 발간·제공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공업화학회 회장에 건국대 문두경 교수

건국대학교는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문두경 교수(사진)가 지난 10월 31일 한국공업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총회에서 제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6일 밝혔다. 회장 임기는 1년이다. 문 교수는 건국대 졸업 후 동경공업대학(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3년부터 건국대 공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건국대 공과대학 부학장, 학장 등을 지냈고, 한화 케미컬 중앙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 벤처기업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졸업생 임범두 박사 논문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게재

세종대학교(총장배덕호)는 물리천문학과 졸업생 임범두 박사(사진)가 주도하는 연구진이 네이처(Nature) 자매지 ‘네이처 아스트로노미(Nature Astronomy)’ 최신호에 논문을 게재했다고 6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넓은 범위의 자전속도 분포에 의한 확장된 주계열 전향점(Extended main sequence turn-off originating from a broad range of stellar rotational velocities)’으로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성환경 교수, 벨기에 리에주대학교 연구진,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진이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조희연 “유치원 3법’ 통과돼야 비리해결 가능”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간담회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된 관련 3개 법안(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박용진 의원이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박 의원은 이날 “유치원 비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1

3법 개정안은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성격을 바꾸고,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부당사용시 반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징계나 중대

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규정과 교육부·교육청이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 등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회 교섭단체 중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3법 개정안에 큰 이견이 없지만, 한국당은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나 아직 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회에서 발의된 3법안이 시행된다면 교육청이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보다 강력한 추진 동력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용수 기자 hys@T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치아 노화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구두를 오래 신으면 굽이 닳아 버리듯 치아도 오래 사용하면 마모되기 마련이다.

물론 마모의 정도는 평소 식습관이나 관리방법에 따라 조금씩 개인차가 있는데 만일 치아 표면이 심하게 닳았거나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동반된다면 치과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치아가 노화되면 우리 인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노화증상으로는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치근(뿌리)이 노출되는 경우, 치아와 치아 사이가 뜨거나 벌어지는 경우, 치아가 심하게 마모되어 저작기능을 상실하는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심한 경우 치아를 상실하기도 하는데 치아가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위장기

능 저하로 영양불균형을 초래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70% 이상이 치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틀니를 사용하고 있거나 틀니를 필요로 하고 있고, 85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서는 치아가 거의 없는 무치악 상태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치악 상태의 환자 대부분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대신 일반 틀니를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본원에서는 환자의 구강상태 및 니즈에 따라 전체틀니 또는 몇 개 남은 치아를 이용한 부분틀니,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 이를 유지장치로 이용하는 임플란트 틀니를 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방법은 결국 낳다 뺐다 하는 착탈식의 틀니 치료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다보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 되고, 많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충분한 잇몸뼈, 그리고 이러한 시술을 견뎌낼 수 있는 건강상태만 뒷받침된다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이브리드 임플란트’가 대표적인 시술방법으로 윗니에 5~7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아래쪽에는 4~6개의 임플란트만을 심은 후 이를 이용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시켜주는 것으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덜해 노년층 환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이 치료법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치아와 거의 흡사한 저작력과 심미적인 효과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고,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면서 심미적으로도 기존 틀니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는 점이다. 단, 이렇게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고정식 보철을 장착하려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 시술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 전 CT 촬영과 더불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밀 가이드 시술법이 병행되어야만 보다 정교한 시술이 가능하다.

아울러 임플란트 시술은 의사의 풍부한 임상경험이 뒷받침 되어야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임플란트 전문병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치과전문의에게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민윤신치과 원장



NH농협은행, 거래 외국계은행과 농촌 일손돕기

NH농협은행은 6일 코레스은행 임직원을 초청해 경기도 가평 아홉마지기 마을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협은행과 외환송금 및 신용공여한도 제공 등의 협력을 하고 있는 HSBC, CITI 등 국내 소재 15개 코레스은행 임직원이 참가해 사과를 수확하고 선별작업을 펼쳤다.

/NH농협은행



제주항공, 동방신기에 명예사원증 수여

제주항공이 자사 모델 ‘동방신기’에게 명예사원증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지난 5일 회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직원들을 칭찬하는 ‘뉴 스탠더드 데이’ 사내 행사에 참석해 명예사원증을 받았다. 두 사람은 모델로서의 역할과 함께 제주항공 고객경험 개선TF(테스크포스) 팀원으로 소속돼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하게 됐다.

/제주항공



(왼쪽 세번째)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왼쪽 일곱번째)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왼쪽 여덟번째)문창용 캠프 사장, (왼쪽 아홉번째)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오른쪽 두번째) 김민호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공공기관 간 협업모델 확산으로 일자리 창출

예탁원,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토론회

한국예탁결제원은 6일 오전 11시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프마루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등 부산지역 7개 공공기관과 함께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8개 공공기관이 공동 조성한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 성과 발표와 공공기관의 고유 사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성

과 공유’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이목희 부위원장 등 일자리위원회 관계자와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사회적기업이 의견을 제시하는 토크콘서트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

위원장은 “부산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간 협업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수렴해 중앙정부에서 정책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벤처·창업기업 대상 크라우드펀딩 IR 지원’ 역시 더욱 많은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SKT 브랜드 캠페인 ‘대한민국광고대상’

씨유투모로우·소방관·경찰관 편

SK텔레콤 기업브랜드 캠페인(‘SEE YOU TOMORROW’)이 2018년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했다.

SK텔레콤은 한국광고총연합회 주최 ‘2018 대한민국광고대상’ 방송광고 부문에서 기업브랜드 캠페인 ‘씨유투모로우’·‘소방관’·‘경찰관’ 편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광고대상은 1981년 시작된 한국방송광고대상의 후신으로 권위의 광고상이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노력하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미래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SK텔레콤은 ‘5G, IoT 등 SK텔레콤의 기술은 가장 가치있는 일에 쓰여야 한다’



SK텔레콤기업 캠페인 ‘씨유투모로우’.

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인사

- ◆ 위키리크스한국국·편집국 △미래산업부장/부국장 노진우 △금융팀장 김호성
- ◆ 안랩 △서비스사업부장 임영선

부음

- ▲ 김선용씨 별세, 박달화(경인방송 미래전략실장)씨 장인상 = 5일, 인천시 중구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8일 오전. 010-4334-5580

- ▲ 문동갑 씨 별세, 석주(신아일보 전북 익산주재부장)·송주·현주·광주·숙자·경숙 씨 부친상 = 6일 오전 6시,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층 204호 VIP룸, 발인 8일 오전 8시. 063-855-1734, 010-3672-6628



CJ제일제당, 이달 한 달 ‘봉사주간’ 운영

CJ제일제당이 11월 한 달간을 집중 ‘봉사주간’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봉사주간’은 업무에 바쁜 임직원에게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업의 특성을 살린 봉사 프로그램 찬찬한 프로젝트에 참가한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이 미혼한부모 가정에 전달할 반찬을 만들고 있다.

/CJ제일제당



동원F&B, ‘고객중심 경영혁신 컨퍼런스’ 우수사례로 발표

동원F&B가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최의 ‘고객중심 경영혁신 컨퍼런스’에서 국내 우수 기업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세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동원F&B는 최근 4차산업혁명과 마켓4.0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참치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동원F&B가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운영한 동원참치 팝업스토어.

/동원F&B



NH농협생명, 가을철 농촌 일손돕기 진행

NH농협생명은 지난 1일 충청남도 예산군 상가리에서 가을철 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김희석 NH농협생명 자산운용총괄부사장(가운데줄 오른쪽 네번째)이 임직원 40여명과 함께 충남 상가리 마을을 찾아 감 수확 작업을 마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NH농협생명

홈플러스 '조인어스 파트너스' 시스템 구축

협력사 진입장벽 '확' 낮춘다



개인·중소기업 등 입점 상담 가능
경쟁력 상품 발굴해 지원·판로 확보

홈플러스가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좋은 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다.

홈플러스는 협력회사의 대형마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누구나 손쉽게 거래를 상담할 수 있는 '조인어스 파트너스'(Join us, Partners, ecs.homeplus.co.kr) 시스템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조인어스 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전국 141개 대형마트, 350여 개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70여 개 편의점(365플러스), 온라인몰(홈플러스 온라인)의 상품 거래를 비롯해 패션, 레스토랑, 푸드코트 등 홈플러스 몰 매장 입점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거

래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조인어스 파트너스'에 접속해 상품과 회사 정보를 등록하면, 담당 바이어로부터 3일 이내 답변을 받고, 입점을 협의할 수 있다.

기존에도 온라인 입점 상담 시스템은 존재했지만, 관련 장구를 알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바이어와 연결되지 않아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자사 홈페이지와 온라인몰을 통해서도 시스템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게 만들고, 상담 신청 등록 즉시 담당 바이어에게 매일이 자동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상담 신청을 받은 바이어는 3일 이내 답변을 등록해야만 하는 업무 원칙도 새롭게 도입했다. 상담이 시작된 상품은 매장에 론칭될 때까지 매일 상품부문에 게시 진행 현황이 보고된다.

이를 통해 판로 확보가 쉽지 않은 중소

기업이나 개인의 상품 판매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회사 규모가 작더라도 뛰어난 아이디어나 감각적인 디자인을 갖춘 상품을 발굴함으로써 기존 대형마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쟁력 있는 상품군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스페셜' 점포에 힘을 더한다는 의미도 있다. 대형마트와 창고형 할인점의 강점을 결합한 신개념 하이브리드 스토어 '홈플러스 스페셜'의 확대 및 지속 성장을 위해 신상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상품부문장 김웅 전무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업체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며 "거래 규모나 인지도 등 통상적인 평가 기준들을 과감히 탈피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주는 상품 발굴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 비비고 '진한 교자 칼국수'와 '얼큰버섯 칼국수' 출시
CJ제일제당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CJ제일제당센터에서 신제품 비비고 '진한교자 칼국수'와 비비고 '얼큰버섯 칼국수'를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GS25, 반려동물용품 점포 4000개로

전년비 90% 이상 성장률 기록 전망

GS25가 1000만 반려동물 인구를 위한 펫코노미(Pet+Economy)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SBS 'TV 동물농장'과 함께 반려동물 용품 P B(전용상품 브랜드) '유어스 TV동물농장'을 새롭게 론칭하고, 내년까지 반려동물 용품 전용 매대를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GS25가 반려동물 용품을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소득 증가 등으로 국내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GS25의 반려동물 용품 매출은 2016년 47.3%, 2017년 72.5%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9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S25는 내년까지 반려동물 용품 전용 매대를 기존 1800개 점포에서 4000개 점포로 확대한다. 점포는 1인 가구가 많은 상권을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새롭게 론칭한 '유어스 TV동물농장' 상품도 반려동물 용품 전용 매대에서 판



GS25 고객이 반려동물 용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GS리테일

매된다. 상품은 프리미엄급 반려견 간식 6종, 사료 2종, 장난감 4종 등 총 12종으로 구성됐다.

GS리테일은 '유어스 TV동물농장' 론칭을 시작으로 상품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안병훈 GS리테일 생활서비스 MD부문장은 "국내 전체 반려 동물 관련 시장 규모가 2015년 1.8조에서 2020년 5.8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노령화, 1인 가구 증가로 반려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프리미엄 상품을 찾는 고객 니즈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상품을 점차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야쿠르트, 누룽지마라·우육면키트 출시

정지선 셰프와 손잡고 신제품
밀키트 제품으로 간편식 선도

한국야쿠르트가 정지선 셰프와 손잡고 '누룽지마라두부키트'와 '우육면키트'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한국야쿠르트는 지난해 7월 간편식 시장에 진출하며 업계 선도적으로 밀키트 제품을 선보여 왔다. 현재까지 출시된 밀키트 제품은 총 30여종에 달한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셰프 협업으로 선보인 밀키트 제품은 총 7종이다. 제품 구성은 이번 신제품 2종을 포함해 이인희 셰프의 '비프잡스테이크키트'와 '치킨라따뚜이키트', 김현 셰프의 '서울식소불고기전골키트', 이승아, 최수빈 셰프의 '조계국수키트', 윈드민지김 셰프의 '사골떡국키트'다.

'누룽지마라두부키트'는 중국 사천 지방의 정통 가정식 '마라두부'에 누룽지를 가미해 재해석한 메뉴다. 매콤한 맛과 다채로운 향신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맛



누룽지마라두부키트, 우육면키트. /한국야쿠르트

과 향이 풍부하다. 불 맛을 담은 향미유와 누룽지 칩을 함께 구성해 식감과 완성도를 높였다.

'우육면키트'는 중국, 홍콩 등 중화권의 대중적인 면요리로 깊고 진하게 우린 육수에 소고기 고명을 올린 음식이다. 부드러운 차돌박이와 탱탱한 면발에 진하고 시원한 국물이 고스란히 배었다. 더불어 청경채와 숙주, 목이버섯 등 각종 채

소들이 큼직하게 들어가 아삭한 식감도 같이 즐길 수 있다.

정 셰프는 "한국야쿠르트와의 협업을 통해 마라의 맛과 향이 잘 살아있는 정통 중식에 가까운 밀키트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레스토랑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넘어 많은 대중들에게 나의 요리를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대상 청정원, '집으로ON 기획전' 진행

22일까지 홈페이지서 구매 기회

대상 청정원이 오는 22일까지 정원e샵 홈페이지에서 '집으로ON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집으로 ON'은 청정원에서 만든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그동안 '집으로ON'을 잘 몰랐던 소비자라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며, 동시에 집으로ON 인기상품 선물도 받아 갈 수 있다.

'집으로ON 기획전'에서는 칼로리 고민 없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곤약볶음밥 3종 세트'를 7490원의 할인가로 준비했다. 집으로ON이 선보였던 국민간식으로 인기를 끌었던 '즉석떡볶이', '즉석짜장떡볶이' 구성의 '떡볶이 2종 세트'는 9900원에 할인 판매하며, 한식 레스토랑 '불고기브라더스'와의 콜라보레이션 을 통해 선보였던 '렌지ON 매콤제육볶



음', '렌지ON 소불고기' 2종 세트를 할인가 9900원에 판매한다.

자신이 먹고 싶은 세트에 '좋아요'만 누르면, 10% 추가 할인이 가능한 쿠폰이 지급되며 세트 구입 후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후기가 담긴 URL이나 응원댓글을 홈페이지 내 댓글 게시판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집으로ON 상품을 증정한다.

/박인용 기자

롯데마트

창사 39주년 대형 할인행사

롯데마트는 롯데쇼핑 창사 39주년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전점에서 대형 할인 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대표 상품으로는 연말 파티 수요 등을 감안한 '미국산 활 랍스터'와 '시푸드 카테일 소스' 등이 있다. 함께 곁들이기 좋은 와인으로는 '하디 크레스토 스파클링'과 '킬러카는 첼로 사도네이' 등을 2개 구매 시 10%, 3개 구매 시 15% 할인 판매한다.

또한 호주산 곡물비육 부채살을 롯데마트 M쿠폰 회원 대상으로 2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멕시코산 아보카도와 미국산 냉동 블루베리, 감귤 등도 저렴한 가격에 출시한다.

이번 할인은 오는 11일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 축제 맛이 행사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강점을 살려 고객이 직접 보고 구매하는데 중점을 뒀다. /신원선 기자



스타벅스커피가 '에코 보너스 스타'로 개인 컵 이용 혜택을 늘린다. /스타벅스커피

스타벅스 '에코 보너스 스타' 제도 시행

개인 컵 이용시 에코별 적립 가능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오는 7일부터 개인 컵을 이용하는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을 위한 '에코 보너스 스타'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에코보너스스타' 제도를 통해 개인 컵 이용 고객을 위한 혜택을 강화해 나가며, 더 많은 고객들이 개인 컵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 경영을 지속 이어갈 예정이다.

'에코보너스스타'란 개인 컵을 사용하여 제조 음료를 구매할 경우 에코별 1개를 증정하는 새로운 개인 컵 리워드 혜택으

로,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하는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존에는 개인 컵으로 제조 음료를 주문할 경우 300원의 금액 할인 혜택만 가능했다면, '에코 보너스 스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개인 컵을 이용하는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은 300원 할인 혹은 에코별 1개 적립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골드 회원이라면 12개의 별이 모일 경우 톨 사이즈의 제조음료가 무료로 제공되는 만큼 혜택이 확대돼, '에코 보너스 스타' 제도를 통해 개인 컵 사용 고객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용 기자

10개월 공백 딛고 돌아온 원희목

제약바이오회장 선임

이사장단 회의 14명 전원 참석
공직자윤리법 따라 12월 취임



원희목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원희목 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다시 돌아온다. 협회는 6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협회장에 원희목 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원 전 회장의 사임 이후 10개월간 공석으로 비워져있던 제약협회장 자리는 결국 같은 사람으로 채워지게 됐다.

협회는 이날 오전 제16회 이사장단 회의를 가졌다. 14명 이사장단이 전원 참석했으며 만장일치로 협회장을 결정하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던만큼 오늘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사장단은 지난 달 23일 협회장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2주 후로 미룬 바 있다.

원 전회장이 이사장단의 결정을 바로 수용하며, 회장 선임건은 바로 이사회로 넘어간다. 원 전 회장은 “향후 이사회 선

입절차를 밟아 만약 회장직을 맡게되면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산업이자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확고히 발전해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등 상근임원은 이사장단회의에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협회는 오는 19일 이사회를 개최, 회장 선임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후 총회 보고를 통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사장단 추천을 받은 원 전 회장이 회장으로 최종 선임돼도 취임은 12월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원 전 회장의 취임제한 시한이 이달 말까지기 때문이다. 원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했지만 2년의 임기를 채 채우지 못하고 올해 1월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원 회장이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계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복지개발원과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역임한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에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처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

원 회장이 지난 2015년 11월 30일 까지 사회보장정보원장을 지냈던 것을 감안한다면, 가장 빠른 영입일인 오는 12월 3일이 돼야 협회장 취임이 가능해진다. 취임 후 원 회장은 내년 2월 까지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원 전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제33, 34대 직선제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역임했던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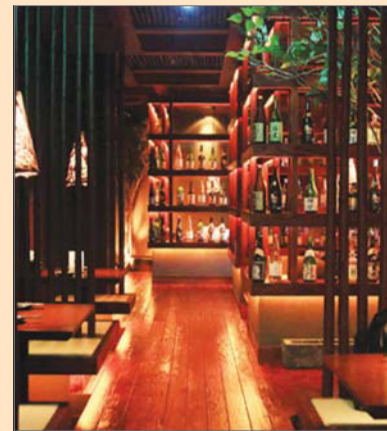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객단가 높이고 단골고객 잡고” 외식업계, 이색음료로 차별화

최근 외식업체들이 차별화된 음료 메뉴를 통해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객단가를 높이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특히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료다. 좋은 술과 음료는 좋은 음식 못지 않게 식사의 흥을 돋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업체들마다 메뉴뿐 아니라 주류 및 음료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특별한 음료는 브랜드의 개성을 각인시켜 단골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출 견인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청담이상

를 얻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사케로 꼽힌다. ‘청담이상’은 정통 일식을 지향하는 프리미엄 메뉴와 특제 사케를 통해 단골고객들을 확보, 지속적으로 가맹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마라탕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건대, 태평, 대림 등의 상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마라탕 전문점이 생겨났다. ‘탕화쿵푸’는 대표적인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로, 2030 젊은층을 중심으로 단골고객이 형성돼 있다. ‘탕화쿵푸’는 정통 중국식 마라탕을 선보이는 것에 더해 현지 음료를 함께 골라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방문 고객들은 매장의 다양한 현지 음료를 보고 ‘마치 중국 편이집에 온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김동현 창업 디렉터는 “우후죽순으로 외식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며 따라 메뉴 변별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브랜드의 개성이 담긴 음료는 변별력을 더해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테이블당 객단가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낸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강촌식당

‘강촌식당’은 꼬막비빔밥과 닭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캐주얼 한식 브랜드다. 젊은날 강촌의 추억을 되살린다는 컨셉에 맞게, 옛 강촌역을 본딴 인테리어가 인상적이다. ‘강촌식당’은 강원도의 명물로 꼽히는 치악산생막걸리, 옥수수생막걸리를 제공한다. 특히 옥수수생막걸리는 옥수수 전분이 아닌 진짜 옥수수가루로 만들어 고소한 풍미가 일품이다. 두 막걸리는 일반 편의점에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인기가 높다. ‘강촌식당’은 6070세대에게 익숙한 잔 막걸리도 판매하고 있어, 중년층의 향수를 제대로 자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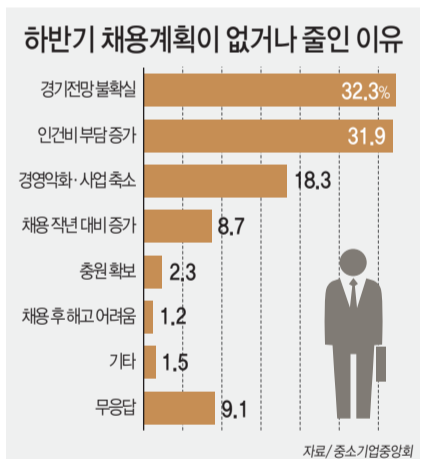
일식 다이닝 레스토랑 ‘청담이상’은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만든 특제 사케를 제공한다. 이상준마이, 이상준마이다이진조는 ‘청담이상’과 일본의 사케 장인이 합작해 만든 것이다. 특히 이상준마이다이진조는 50% 이상 도정한 쌀로 정성껏 빚어 특유의 과일향과 부드러운 목넘김으로 2030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



중소 10곳중 8곳 “하반기 채용계획 없다”

경기 불안·인건비 부담 등 문제

75.2%, “인력 부족하지 않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경기 불안,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6곳은 갈수록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2010곳을 대상으로 인력 수급,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 실태를 조사해 6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2.9%는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경기 전망 불확실(32.3%), 인건비 부담 증가(31.9%),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 축소(18.3%) 등이 주요 이유였다.

응답기업 가운데 상반기에 채용을 했다는 기업도 26.4%에 그쳤다.

대체로 상반기, 하반기에 채용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75.2%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임금·복지 수준이 낮아서’가 39.8%로 가장 많았고, ‘안 좋은 직장이라는 사회적 편견’(25.7%), ‘3D 업종의 업무를 꺼려하기 때문에’(25.6%) 등을 꼽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60.8%는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신규채용 축소(38.9%), 감원(17.2%), 가족고용 확대(4.7%) 등을 통해서다.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답변도 38.9%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률보다 적게(42.2%) 올려주거나 아예 올려주지 않는다(13.4%)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질에 초점을 맞춘 급격한 노동정책의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영세기업과 대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기업이 개별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일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웨이 6가지 세정코스 ‘스타일케어 비데’ 출시

코웨이는 몸 컨디션에 최적화된 6가지 맞춤 세정 코스로 더욱 꼼꼼하고 강력하게 케어하는 ‘스타일케어 비데’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스타일케어 비데(BAS31-A)는 사용자 컨디션에 따라 알맞은 수류를 선택할 수 있는 ‘i-wave 시스템’을 적용했다. ‘i-wave 시스템’은 수압, 공기, 세정범위, 시간 등 다양한 수류를 과학적으로 조합해 몸 상태에 최적화된 코스를 제공하는 코웨이의 혁신 기술이다.

일반적인 비데는 일직선의 물줄기만

내보내며 수압 정도만 조절할 수 있다. 코웨이는 비데 사용자마다 선호하는 세정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맞춤형 수류 케어 기능을 개발했다. 신제품 스타일케어 비데는 기존 4가지 코스의 i-wave 시스템을 6가지 맞춤 코스로 업그레이드했다. 베이직 세정 모드, 저자극 케어 모드, 노즐이동식 액티브무브 모드 등 각 코스에 알맞은 수류 변화를 설계해 한번의 터치만으로 원하는 코스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다.

신제품 스타일케어 비데는 3단계 스스



스타일케어 비데

로살균 시스템을 탑재해 위생성을 한층 강화했다. 유로, 노즐, 도기까지 매일 앞서 살균해 비데 속 고인 물을 깨끗이 비우고 사용할 때 마다 노즐을 세척한다.

월 렌탈료는 2만4900원(등록비 10만원 기준)이며 일시불 판매 가격은 81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까사미아 이사 고객과 ‘홈&리빙 페스티벌’

까사미아는 오는 27일까지 새 집으로 이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홈&리빙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까사미아 전국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신규 입주자 대상 20% 할인 ▲손 없는 날 이사 고객 200만 원 구매 시 기프트카드 증정 ▲신제품 출시 기념 추가 사은품 증정 ▲인기 겨울 소품 최대 3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까사미아의 베스트셀러 가구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은 심플한 디자인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침실가구 ‘벤트리 시리즈’, 빈티지한 디자인의 거실가구 ‘로버 시리즈’ 등 평행대 및 공간별로 다양한 인기 가구를 특별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사하기 좋은 날로 알려진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고객은 200만 원 이상 구매 시 추가로 기프트카드 5만원권을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반도체 의인화... SK하이닉스 광고 '올 최고작'

PR캠페인 '2018 한국광고대상' 수상

메모리 반도체를 의인화한 SK하이닉스의 기업PR 캠페인이 올해 최고의 광고 작품으로 선정됐다.

한국광고총연합회는 오는 23일 2018 한국 광고대회를 열고 52개 작품을 2018 대한민국 광고대상으로 시상한다고 6일 밝혔다

통합미디어 부문에서 대상은 이노션 월드 와이드가 만든 SK하이닉스 기업 PR 캠페인이 선정됐다. 방송광고 부문에서도 이노션이 만든 SK텔레콤의 기업PR '소방관·경찰관' 편이 대상을 받았다.

동영상 광고와 옥외광고, 디자인 부문에서는 제일기획이 만든 부산지방경찰청 '스파다 운로드킬', 네파 '비가 오면 자라나는 특별한 나무 레인 트리', 삼성화재 '꽃병소화기 Fire vase'가 대상을 차지했다.

프로모션 부문에서는 대흥기획이 제작한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만든 SK하이닉스 기업 PR 캠페인. '2018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통합미디어 부문 대상을 받는다. /연합뉴스

처음처럼 '마이라벨 프로모션',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는 HS애드의 정의기억연대 '언컴포트 우먼 프로젝트'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광고총연합회는 신동엽씨에게 광고인이 뽑은 최고의 광고모델상을 수여한다. 롯데렌터카와 여기어때 등 광고에 출연했다.

심사를 맡은 정상국 전 LG전자 부사장은 "올해 작품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통합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광고가 눈에 띄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각성과 책임을 강조하는 작품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열과 독소 배출엔 '어성초'



김소영 박사
본초 테라피

어성초(魚腥草)의 한자 뜻을 풀어 보면 '물고기 비린내가 나는 풀'이다. 습한 곳에서 자라며 이름처럼 비린내가 심하게 나서 냄새만으로도 찾을 수 있는 본초가 바로 어성초이다.

어성초의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해독 및 청열 작용이다. '해독초'로 부를 정도로 해독작용이 강하며 피부에 쌓인 열을 내려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다. 다양한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고 피부를 매끄럽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된다.

어성초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항염, 항균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피부 트러블의 진정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 피부를 손상시키는 각종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며 혈액 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서 혈액을 정화하고 혈액 순환을 개선한다. 따라서 여드름을 비롯해서 아토피 치료에 도움이 된다.

피부에 좋은 어성초는 탈모 예방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은 물론이고 두피의 열, 철분 부족과 같은 영양 결핍, 혈액 순환 저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데 현대인들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두피의 열이 증가하면서 탈모가 많이 발생한다.

두피에 열이 많이 쌓이면 염증이 쉽게 발생하게 되고 두피가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빠지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두피의 열을 식혀주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어성초가 도움이 된다.

어성초를 화상수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알코올에 담가 6개월 정도 두어 약효가 충분히 우려난 후에 사용하면 된다. 어성초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여성들의 질염이나 방광염 등의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말린 어성초는 물에 넣어 끓이면 비린내도 사라지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차로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만 말린 어성초는 차로 끓이기 전에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준 후에 차로 달여 마시는 것이 좋다.

대한항공 대형 항공사 최초 전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대한항공이 고객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 체질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국내 대기업 및 전세계 대형 항공사로는 최초로 전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대한항공은 6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LG CNS 및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업무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 장정욱 AWS 코리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더욱 치열해지는 항공산업 경쟁 속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선택하게 됐다"며 "향후 클라우드를 활용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대한항공은 6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LG CNS 및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업무 체결식을 개최했다. 에드 렌타 AWS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디렉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김영섭 LG CNS 사장(왼쪽부터)이 협력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김상희의四季

풍수 인테리어는 삶의 지혜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다. 바로 오랜 시간 동안 경험에서 추출된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안에 복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복을 부르려고 집을 지을 땐 대문의 방위를 살폈고 방의 위치도 함부로 정하지 않았다. 집에 화가 미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고 많은 신경을 쓴다. 옛사람들이 집안 구조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요즘으로 비교하면 집안 인테리어와도 같다.

풍수를 활용한 인테리어로 복된 기운을 부르는 지혜를 배워 자기의 집에 적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아파트 생활이 많아 획일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집안풍수에 따라 복은 달라진다. 풍수 인테리어에서 손쉬운 방법은 색상 인테리어이다. 색상은 그저 하나의 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유의 의미를 갖고 있다. 커튼의 색깔을 바꾸거나 벽지를 다른 색으로 하면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활기찬 느낌이 든다. 각각의 색이 뽐어내는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커튼이나 가구 일부를 노란색으로 바꾸어 불만하다. 노란색은 흠여지는 재물을 담는 기운을 갖고 있다. 인간관계로 마음이 힘들 땐 녹색 벽지가 좋다.

자연을 상징하는 녹색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고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자연업을 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매출이 떨어지고 걱정이라면 빨간색을 권한다. 빨간색은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는 기운이 있다. 현관은 사람의 출입구이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출입구이다. 현관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 조명이 환하게 설치해서 복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 듯 분위기를 연출하면 좋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정면으로 거울이 보인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 풍수를 바탕으로 한 인테리어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오늘의 운세 11월 7일 (음 9월 30일) <http://www.saju4000.com>

| | |
|--|---|
| <p>쥐</p> <p>48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60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빙빙 도는 하루. 72년생 노력한 보람이 주어지지 보람을 느낀다. 84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활짝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p> | <p>말</p> <p>54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살자. 66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이 대화가 필요. 78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90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은 참아라.</p> |
| <p>소</p> <p>49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61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 73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85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 노력.</p> | <p>양</p> <p>55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67년생 광기와 천재성 사이의 거리는 성공으로만 측정. 79년생 내가 먼저 믿어야 남도 설득할 수 있다. 91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중심을 잡아라.</p> |
| <p>호랑이</p> <p>50년생 목이 마른 자가 우물을 파는 법. 62년생 1%만 상대를 존중해줘도 99%의 마음을 얻는다. 74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86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러니 즐거운 하루.</p> | <p>원숭이</p> <p>56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그리움이 쌓인다. 68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80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92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p> |
| <p>토끼</p> <p>51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 63년생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75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충전이 필요. 87년생 게르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p> | <p>닭</p> <p>57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 69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적으나 성과도 적다. 81년생 마음이 울적하니 친구가 와서 위로해 준다. 93년생 두 가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해야 할 것.</p> |
| <p>뱀</p> <p>52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64년생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76년생 모난 돌이 정 맞으니 오늘은 자중해야. 88년생 직장에서 소식이 오니 바라던 일이다.</p> | <p>개</p> <p>58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70년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82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94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p> |
| <p>돼지</p> <p>53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65년생 붉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77년생 때로는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89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해 보자.</p> | <p>돼지</p> <p>59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족의 화목에 있다. 71년생 이미 망해버린 나라의 옥새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83년생 자녀에게 지나간 간섭은 관계를 악화시킨다. 95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벅찬 하루.</p>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8 | | | | | 6 | | | |
| | 2 | 6 | | 3 | 5 | | | |
| | | 5 | 9 | 8 | | | | |
| 3 | 6 | | | | 8 | | | 9 |
| | 2 | | | | | | | 5 |
| 9 | 4 | | | | 3 | | | 2 |
| | | 1 | 7 | 2 | | | | |
| | | 7 | 8 | 4 | 1 | | | |
| 6 | | | | | | |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7 | | 2 | 6 | |
| 1 | | 6 | | 2 | | | | 8 |
| | | 1 | | | | 8 | | 4 |
| 4 | 6 | | | | | | | 9 |
| 3 | | 1 | | | 4 | | | |
| 8 | | | 2 | 7 | | | 4 | |
| | 4 | 9 | | 1 | 6 | | | |
| | | | | | | |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8 | 2 | 6 | 5 | 9 | 1 | 7 | 3 | 4 |
| 5 | 9 | 1 | 7 | 8 | 2 | 6 | 4 | 3 |
| 9 | 7 | 6 | 2 | 1 | 5 | 8 | 3 | 4 |
| 2 | 1 | 9 | 8 | 7 | 5 | 6 | 4 | 3 |
| 7 | 5 | 9 | 1 | 8 | 6 | 8 | 2 | 1 |
| 6 | 8 | 5 | 2 | 9 | 1 | 7 | 3 | 4 |
| 1 | 2 | 8 | 6 | 5 | 9 | 7 | 4 | 3 |
| 8 | 6 | 5 | 7 | 9 | 2 | 1 | 3 | 4 |
| 9 | 7 | 1 | 2 | 6 | 8 | 5 | 4 | 3 |
| 9 | 2 | 6 | 8 | 5 | 7 | 1 | 4 | 3 |
| 2 | 8 | 5 | 9 | 1 | 6 | 7 | 3 | 4 |
| 1 | 7 | 9 | 2 | 6 | 3 | 5 | 8 | 4 |
| 5 | 2 | 9 | 7 | 8 | 1 | 6 | 4 | 3 |
| 1 | 6 | 1 | 9 | 2 | 5 | 8 | 9 | 7 |
| 7 | 8 | 6 | 9 | 1 | 5 | 1 | 2 | 3 |
| 8 | 5 | 7 | 2 | 9 | 1 | 6 | 4 | 3 |
| 6 | 9 | 2 | 1 | 8 | 7 | 5 | 4 | 3 |
| 9 | 1 | 2 | 5 | 7 | 6 | 3 | 8 | 4 |

문제 제공= 보누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 이창규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김교준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74호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78호 |

갈라지는 뱀살·닭살 NO!... 월동 준비 마무리는 '보습'

겨울 보습아이템 출시 잇따라
 풋크림·립글로우도 보습 ↑
 소량 사용, 고보습 제품 인기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부 보습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습 바이블'로 불리는 베스트셀러들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신제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스킨케어부터 핸드크림까지...신제품 '뽀뽀'

환절기에는 기온 차가 커 피부 속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쉽다. 피부 각질층이 약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망가지기 쉽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화장품 업계는 지난달부터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라네즈, 아이오펜, 뉴트로지나 등이 '고보습'을 강조한 신제품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라네즈의 '크림 스킨'.

라네즈는 고보습 스킨 크림 '크림 스킨'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크림을 스킨에 녹여, 스킨 하나만으로도 높은 보습력을 제공한다.

라네즈 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출시 3주 만에 10만 개의 판매고를 올렸다. 보

통, 건조함이 심해질 수록 보습 단계를 늘리는데, 첫 단계부터 높은 보습력을 제공한 것이 인기를 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이오펜도 피부 진정과 탄력에 도움을 주는 고보습 '모이스트젠 라인'을 새로

게 출시했다. 소프너, 에멀전, 크림 등 3종으로 구성된 이 라인

소프너, 에멀전, 크림 등으로 구성됐다. 모이스트젠 라인은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D-판테놀을 함유해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시켜 준다. 히아루론산, 참마 뿌리 추출물이 함유돼 피부를 탱탱하게 가꿀 수 있다.

뉴트로지나는 소량으로도 깊은 보습감을 전달하는 '노르웨이전 포물러 리미티드 에디션' 3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보디라인 에멀전과 핸드크림으로 구성돼 있으며, 3가지 디자인과 색상으로 출시됐다.

◆'보습 바이블' 베스트셀러는?

매년 겨울철이면 수많은 신제품들이 출시되지만 베스트셀러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쓰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드 크림', 록시땅의

'시어버터 풋크림', 디올의 '어딕트 립 글로우' 등이 대표적이다.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드 크림'은 피부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자 제품의 핵심 성분인 '세라마이드'를 함유한 고보습 크림이다.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겨울철 필수템'으로 자리매김한 이 제품은 지난해 효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록시땅의 '시어버터 풋크림'은 시어버터가 풍부하게 함유돼 촉촉한 보습감을 자랑하는 풋크림이다. 주요 성분인 시어버터 15%와 라벤더 에센셜 오일, 글리세린, 민트, 아르니카 추출물이 함유돼 있다. 150ml의 대용량으로 겨울철 내내 사용할 수 있다.

디올의 '어딕트 립 글로우'는 전 세계적으로 3초에 1개씩 판매되며 '국민 립밤'으로 등극했다. 망고 버터 추출물이 풍부하게 함유된 포물러로 24시간 최최의 수분감을 지속시켜주는 제품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KT는 CJ CGV와 스마트 영화관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거실이 극장으로... '스마트영화관' 만든다

KT-CJ CGV ICT기반 업무협약

거실과 영화관 경계가 무너지는 전망이다. KT가 CJ CGV와 손을 맞잡으면서다. KT는 5일 CJ CGV와 '마케팅 제휴 확대 및 ICT 기반의 스마트 영화관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콘텐츠를 공동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영화관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독립 영화와 게임, 스포츠 등 올레tv 콘텐츠를 IPTV와 극장에서

도 즐길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한다. 오는 12월 열리는 '2018 KPMA' 생중계가 첫 걸음이 될 예정이다.

스마트 영화관 구현에도 힘을 합친다. KT가 ICT 역량을, CJ CGV가 공간 구현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양사는 정보 격차 해소와 문화 생활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극장이 없는 지역에 KT '5G 찾아가는 영화관'과 CGV '토토의 작업실'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김재용 기자 juk@

"11월이니까 하나하나 챙겨줄게" 올리브영, '11' 프로모션

인기상품 11% 할인·1+1 이벤트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은 오는 11일까지 '11월이니까 하나하나 챙겨줄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유통업계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 11월을 맞아 숫자 '11'을 활용한 행사를 기획했다.

인기 제품을 원플러스원(1+1)으로 판매하거나 11% 할인하는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에 언어유희로 재미를 더했다. 이번 11월 행사에서는 클린 향수 30ml와 웨이크메이크 컬러젤퀴드라이너를 원플러스원(1+1)으로 판매하며, 유세린, 라로슈포제, 클로란 등 일부 브랜드의 전



품목을 11%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에이프릴스킨 매직스노우 쿠션,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H2O, 에이바자르 퍼펙트 브리리프팅 프리미엄 마스크 등 인기 상품을 11% 할인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국내외 대규모 쇼핑 행사가 펼쳐지는 11월을 맞아 고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취업 어렵다지만... 10명 중 3명 '면접 노쇼'

잡코리아, 취업준비생 1213명 설문
 불참 이유 "회사 평가 좋지 않아서"

극심한 청년취업난 속에서도 사전 연락도 없이 지원했던 기업의 면접에 불참하는 이른바 '면접 노쇼(No-Show)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잡코리아가 올해 면접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생 1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생 10명 중 3명 꼴인 26.9%가 '지원했던 기업으로부터 면접통보를 받고서도 사전 연락 없이 면접에 불참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면접 노쇼는 고용형태별로 정규직 지원자(29.0%)가 비정규직 지원자(21.8%)보다 더 많았다.

면접에 불참했던 이유는 '면접 전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연봉, 복지 등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다른 회사 면접 일정과 겹쳐서' 불참했다는 응답도 27.5%로 비교적 많았다.

이외에 '문지마 입사지원으로 그 회사 입사 의사가 별로 없어서(11.3%)', '면접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받아서(11.0%)', '아차피 면접을 봐도 떨어질 것 같아서(6.7%)', '건강상의 이유 등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5.5%)', '그냥 이유 없이 모든 게 귀찮아져서(2.4%) 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사전 연락 없이 면접에 불참했던 기업(복수응답)으로는 △중소기업이 응답률 70.3%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대기업

(14.1%)와 △공기업 및 공공기관(8.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면접 노쇼 횟수는 △1회가 54.1%로 가장 많았으며, △2회(30.6%) △3회(8.9%) 등의 순이었다.

한편, 면접 노쇼 경험이 있는 취업생 46.5%는 면접에 불참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회했던 이유로는 △내 자신 스스로가 의지박약이라고 느껴져서(27.6%) △포기하고 봤던 다른 기업 면접들에서 불합격해서(27.0%) △실전 면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19.7%) △알고 보니 괜찮은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17.8%) △동종업계 기업에 입사지원 시 평판이 안 좋을 것 같아서(7.2%)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hys@

관광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인증 획득

한국관광공사가 국제표준화기구(ISO) 부패방지경영시스템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관광공사는 지난 5일 원주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과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6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 내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을 위해 2016년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지난해 4월에 국내로 도입됐다.

이번 인증은 한국관광공사의 기관 내부 핵심인 파악 및 부패방지 개선 계획, 내부 관리 프로세스, 반부패 방침 관련 정책 등이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관광공사는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추진 TF를 구성, 부서별 잠재 부패이슈를 도출하고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 개선목표를 수립하는 등 부패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임직원들의 청렴마인드



지난 5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원주 본사에서 개최된 인증서 수여식.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왼쪽),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 /한국관광공사

와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향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아모레퍼시픽그룹 '中 국제수입박람회' 참가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해 '아시아 뷰티를 선도하는 혁신'이라는 주제의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일까지 상하이 국가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제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CIIE)'는 중국 상무부와 상하이

정부 주최로 개최되는 대형 국제 박람회다.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30개국 3000여 개 기업과 약 15만 명의 바이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중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설화수,

라네즈, 이니스프리, 헤라, 러 등 5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3D프린팅 기술을 응용한 맞춤형 마스크 및 세계 최초의 쿠션 개발 스토리 등을 통해 아시아의 지혜와 혁신적인 기술이 어우러진 '아시아 뷰티'의 정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A MORE Beautiful World'라는 비전 아래 여성, 문화, 자연생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소개한다.

/김민서 기자



무자비한 힘이
나타났다!

통다리살 치킨버거

T-REX

티렉스 ₩3,500

New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무안관광의 새 지평, 갯벌랜드... “힐링하러 오세요”

전시·먹거리 등 종합관광지 조성
방갈로·캠핑장 등 숙박시설 완비
다양한 시설, 가족 관광객에 인기

무안갯벌랜드가 무안 관광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전남 무안군은 지난 2013년 해제면 유월리에 199억 원을 투입해 전시와 체험, 숙박, 먹거리가 있는 치유와 힐링의 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2017년 말 준공했다. 또한 유원지 통합명칭을 공모하여 “무안갯벌랜드”로 확정하고 201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무안갯벌랜드에는 무안생태갯벌과학관을 중심으로 분재테마전시관과 분재전시실 등 볼거리 이외에도 숙박시설인 황도이글루, 황도움막, 방갈로, 캐러반, 오토캠핑장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식당과 매점, 카페, 바비큐장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다.

◆생물 다양성 등 가치를 인정받는 무안갯벌

무안갯벌은 청정 환경을 유지하고 갯

무안갯벌축제



벌의 생성·발달·소멸 과정 등을 관찰할 수 있어 국·내외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2001.12.28.) 및 전라남도 제1호 갯벌도립공원(2008.6.5.)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랍사르습지 1732호로 등록(2008.1.14.)되었다.

이런 무안갯벌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갯벌체험장도 마련되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재미가 있는 생태갯벌과학관

무안생태갯벌과학관은 무안갯벌을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2006년 준공되었으며 2017년 1월 전문과학관으로 등록하고 새롭게 변모 중에 있다.

전시시설이외에도 1층 프로그램실에

황도움막



서는 나지 인형 만들기, 물고기 색칠하기 등 6종의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에서는 50여명이 한꺼번에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또한 2층에서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힐링 카페와 황도 촉감체험실이 마련되어 있다.

◆분재의 메카

해제면은 전국 분재의 50%이상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양의 30%가 이 고장 분재라 지역민의 자긍심은 대단하다.

우리나라 분재산업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고 문형열씨의 심혈과 혼이 깃든 분재작품과 각종자료 1,000여점이 분재테마전시관과 분재전시실, 분재하우스 등에 전시되어 무안군이 분재의 고장임을 알 수 있다.

오토캠핑장



특히 무안군에서는 분재 대중화를 위해 분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힐링체류형 관광지

무안갯벌랜드에는 황도와 편백 나무를 활용하고 아름다운 갯벌을 바라다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과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숙박시설에는 단체 이용객을 위한 황도움막(6~8인), 가족 이용객을 위한 황도이글루(4~5인)와 캐러반(4~6인), 3인 이내 가족이나 모인객을 위한 방갈로 등이 있으며 캠핑족을 위한 오토캠핑장과 캐러반사이드도 있다.

편의시설로는 샤워장, 바비큐장, 음수대 뿐만 아니라 갯벌을 바라다보고

분재테마전시관·전시실



산책할 수 있는 갯벌탐방로와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등이 있으며 매점과 식당, 카페가 있어 누구나 자연을 만끽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힐링형·체류형 관광지이다.

생태갯벌과학관의 영상실과 무안생태갯벌사업소내 회의실과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장소로도 적합하다.

무안군은 황도갯벌랜드 부지 내에 해상생존 및 응급처치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해상안전체험관 준공을 계획 중이며, 무안갯벌축제도 매년 개최하여 명실공히 무안갯벌랜드를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 무안=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조선대에 생긴 두번째 기억의 계단

보해양조, 세월호·5·18·위안부 추모공간 조성

“세월호와 5·18, 그리고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들까지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할 상처가 참 많아요.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억의 계단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11월 보해양조는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국제관 사이에 ‘기억의 계단’을 설치했다. 이후 기억의 계단을 좀 더 널리 알려달라는 요청이 회사에 꾸준히

히 접수됐다. 보해가 설치한 ‘기억의 계단’은 세월호와 광주민주화운동 등 아픈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작품이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기억의 계단이라는 의미 있는 공간을 널리 알려달라는 요청에 부응하면서, 설치된 지 1년이 지난 작품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광주 청소년의 미래, 책임지고 응원합니다”

문인 북구청장, 지원·보호대책 마련 예술·스포츠·봉사활동 등 체험 운영

문인 북구청장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 북구는 “문인 북구청장이 6일 청소년수련관을 찾아 청소년 단체·유관기관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을 만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청소년 지원 및 보호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참여활동 지원, 청소년 자립·보호



문인 북구청장

강화 등 4개 분야 20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청소년 활동 거점공간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

며,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진로체험, 꿈을 만드는 청소년 job스케치, 수능콘서트,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지원을 위한 스마트교실을 비롯한, 진로체험, 직업탐방, 창업·전문동아리 육성 등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청소년들이 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카페’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키워주는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3 | 해질 / 17:28

11월

7일 (수)

음력 : 9월 30일

수도권 날씨

9~14°C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추가등록하세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부모 편의 증대를 위해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추가 참여를 받는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에게 공정한 유치원 입학 기회와 편의성을 제공하고 교

원 업무 경감을 지원하는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이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매우 낮았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참여 확

대를 위해 유치원 추가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추가된 등록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올해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는 2018년 11월 1일 서비스가 개통돼 사회적 배려 유아를 대상으로 ‘우선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광주 172개 사립유치원 중 17개 유치원이 ‘우선모집’에 참여 중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인천시, 미래 교통수단 개인형 자율항공기 메카된다”

(PAV)

융합기술로 전국 최초 수행기관 선정
3년간 경제 유발 효과 연간 5000억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발달을 거듭한 자동차산업은 기술과 기술,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결국 드론 및 항공산업과 융합되면서 PAV(개인형 자율항공기)라는 새로운 교통 시스템으로 발달하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PAV를 부르면 무인 조종되는 PAV가 공상과학 영화처럼 도로 위를 떠서 운행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과학기술의 발달로 PAV가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 각국이 PAV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PAV시대 도래를 대비한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국내 최초로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공모하는 PAV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인 '유인 자율운항을 위한 멀티콥터형



인천컨소시엄 PAV 비행체 이미지.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의 수행기관으로 인천지역 컨소시엄이 지난 2018년 9월에 선정돼 총 43억원 규모로 PAV 핵심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최초 정부과제에 선정된 인천컨소시엄은 드론전문 기업인 ㈜숨비, 모터전문기업인 ㈜에스피지, 연구기관인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IBITP(인천경제산

업정보테크노파크) 및 인하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컨소시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컨소시엄 및 UNIST 컨소시엄 등과 경쟁에서 주관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우리나라 PAV 관련 연구에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인천컨소시엄은 PAV의 핵심 요소기

술인 유인자율운항 제어시스템 및 고성능 BLDC 모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상 비행체의 시스템 분석, 개발구성품의 성능검증, 탑승자 보호공간(Cockpit)을 추가한 유인자율운항비행체를 제작함으로써 PAV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PAV는 Air-Taxi를 포함한 미래형 개인 운송수단으로 개개인이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Door-to-Door) 지상과 공중의 교통망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소재·전자·자동차·항공 산업의 발달과 융합으로 구현 가능한 기술이 되고 있다.

2019년에 PAV관련 정부사업비는 약 410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NASA와 보잉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세계 드론 산업은 2023년까지 약 25만대 수준의 생산량과 12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PAV의 원천 기술개발사업을 선점하

며, 지역의 핵심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유인자율운항비행체 관련 인프라를 인천을 중심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PAV 기술이 상용화되면 군사 및 치안 유지용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서지역에 화물·의료 서비스 및 레저 분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다. 향후 3년간 PAV 관련 경제 유발 효과는 연간 약 5000억원이며, 고용 창출 효과는 약 3000명 정도로 전망된다.

임경택 산업진흥과장은 “기존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으로 위축된 산업기반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산업인 PAV산업을 지역 핵심산업으로 지정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PAV산업은 앞으로 인천지역의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도서지역 긴급 구호와 물품 배송, 치안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여 시민 편의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metroseoul.co.kr

서울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첫 도입... 월 10만원

정책으로는 노후 지원에 한계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결 기대

서울 중구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구는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서 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서울시에서 노령화 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1위 등 어르신 생활 위험도가 극에 달했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노인 사회보장급여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어르신 공로수당에는 구 전체 예산 4300억원의 3.6%인 156억원이 투입된다. 서 구청장은 “기초단체와 지방정부는 복지 확대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예산을 늘여나가고 예산 다이어트로 소모성, 전시성 행정과 선심성 예산을 삭감할 경우 재원 확보가 충분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지역화폐 방식으로



서양호 중구청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지급된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를 도입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정부가 책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50만1632원이다.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정부 정책안으로는 노인들의 노후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기초연금 운용에서 일어나는 사각지대를 공로수당 신설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파악, 이를 수급자 지원액에서 공제해 실질적으로 연

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구 관계자는 “양육수당이나 장애인 연금은 받는 사람이 수급자여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선 기초연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뺏기는 수급자 어르신들의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가 파악한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 대상은 1만2800여명이다. 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 1월부터 공로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만약 협의가 늦어지면 소급 진행할 방침이다. 구는 향후 전문가 토론회, 어르신 간담회,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0

영등포 밀가루공장, 문화공장으로 재탄생

서울시 1호 민간주도형 재생사업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영등포에 세워진 밀가루 공장이 82년 만에 문화공장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 구상안을 6일 발표했다. 23개 동을 아우르는 대지 면적 총 1만 8963㎡ 규모의 밀가루 공장은 내년 8월 문화공장으로 새로 단장해 문을 열 계획이다.

지난 1936년 영등포에 건설된 밀가루 공장은 1958년 대선제분이 인수했다. 공장은 사일로, 제분공장, 목재창고, 대형 창고 등 총 23개 동으로 구성됐다.

과거 영등포는 방직, 제분 등 다양한 공장이 입지한 제조산업 거점공간이었다. 대선제분 동쪽으로는 경성방직이, 서쪽으로는 종원방직 경성공장이 이웃해 한 국경제 발전을 이끌었다. 해당 부지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단지과 상업시설이 들어서 과거 흔적이 사라졌고, 대선제분만 온전한 모습을 간직한 채 남아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1호 '민간주도형' 재생사업으로 시와 토지주, 사업시행자의 긴밀한 협의로 이뤄졌다. 사업시행자

인 아르코스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 재생 계획 수립부터 리모델링, 준공 후 운영 등 사업 전반을 주도해 진행한다. 아르코스는 재생사업의 경제적 독립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수익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행·가로환경 인프라 정비 등 행정 지원을 한다.

대선제분 공장은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활용하면서 공간이 가진 스토리에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는 '가치중심' 방식으로 리모델링된다.

1단계 사업으로 전체 23개 동 중 14개 동을 카페, 레스토랑, 상점 등 상업시설과 전시장, 역사박물관, 창업지원공간 등의 공공시설로 조성한다. 시는 현재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12월 중 공사를 시작해 2019년 하반기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대규모 구조물 활용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다.

문화공장은 폐쇄된 화력발전소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미술관이 된 런던의 '테이트 모던', 옛 맥주 양조장을 복합문화시설로 만든 베를린의 '쿨투어 브라우 어라이'를 모델로 한다.

/김현정 기자

‘광역기부식품 북부물류창고’ 신호탄

지역상 효율성 위한 필요성 높아져

경기북부에도 기부식품 물류창고가 들어설 전망이다. 매해 기부식품이 증가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해서다.

경기도는 '경기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구 경기푸드뱅크) 북부물류창고' 설치를 위해 지난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불을 댕겼다.

'경기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는 전국 지원센터와 협력해 식품관련 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여유 식품을 기탁 받아 저소

득·취약계층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현재 도내에는 화성에 경기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 중인 '경기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물류창고' 한 곳이 소재해 있으나, 많은 인구와 광범위한 면적을 보유한 경기도의 특성상 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에도 기부식품 물류창고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더욱이 최근 기부·나눔문화 확대 등으로 푸드뱅크·마켓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기탁 물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기도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경기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북부물류센터 건립 등 관련기관장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이 같은 수요증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 경기북부 기부 식품 접수 규모는 2015년 약 82억 원에서 2016년 90억 원, 지난해에는 93억 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용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승인... 뉴딜사업 추진

사업 대상으로 3개소 합쳐 50개소

경기도가 용인시에서 제출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중앙동(1), 신갈동(1), 구성 마북(1) 등 3개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도시재생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부천 7개, 평택 7개, 성남 17개, 안양 7개, 수원 6개, 포천 3개 등 총 47개소에서 용인 3개소를 합쳐 7개시 50개소다. 도는 지난 9월 19일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용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심사한 결과 해당 요건에 대한 이행작업이 완료돼 6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좁은 도로, 오

래된 건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군이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시군은 인구와 산업체수 감소, 노후 건축물 등 도시의 쇠퇴 정도를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시급성·과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재생전략을 수립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목적에 따라 공단, 철도, 산업단지 등 경제적 기능 재생을 위해 추진되는 '경제기반형'과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부동산]
강남 '래미안 리더스원'
청약 돌입... 그들만의 로또
08



Life

협력사 진입장벽 낮춘다
니



부실한 복합문화시설서 카페형 도서관으로...

'애물단지' 독심 자벌레, 동면 끝내고 날아오르나

되살아나는 서울

☞ 독심 한강공원 '자벌레'

서울 청담대교 하부 독심 한강공원에는 공상과학영화(SF)에 나올 법한 거대한 은색 건축물이 하나 있다. 롤러코스터처럼 둥글게 생긴 건물의 정체는 한강의 전망문화콤플렉스 '독심 자벌레'다. 자나방의 애벌레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자벌레'라고 불린다.

지난 2010년 4월 개장한 독심 자벌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 길이 240m, 높이 5~12m, 폭 6~19m, 연면적 2476㎡이며, 벽 없이 기둥만 세운 필로티 양식으로 지어졌다.

자벌레는 알루미늄 패널을 붙여 만든 외벽, 기둥만 곡선형 구조 등 독특한 형태로 개장 9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해 화제를 모았다. 2014년에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2' 촬영지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장 이후 부실한 콘텐츠, 모호한 정체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복합문화시설인 자벌레를 폐장하고 '카페형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방치된 자벌레... '방만 운영 배경은?'

공간 리모델링 전 자벌레의 마지막 모습을 담기 위해 지난달 28일 독심 한강공원을 찾았다. 공원에 들어서자 독특한 모양의 건축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자벌레는 거대한 은색 구렁이처럼 보였다.

건물은 총 3층으로 구성됐다. 1층에는 전시·공연, 행사·



지난 10월 28일 자벌레 2층 '책 읽는 벌레'를 찾은 시민들이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독심 자벌레를 찾은 시민들이 미술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2010년 개장한 복합문화공간 부실 콘텐츠·노후화로 방문객↓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위해 폐장 컨셉 구성해 내년 4월 준공 계획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편의시설'이, 2층에는 작은 도서관 '책 읽는 벌레'가, 3층에는 '놀이 벌레'로 불리는 생태전시관이 위치해 있다.

가장 먼저 지하철 7호선 독심유원지역과 이어진 1층 문화·편의시설로 들어갔다. 원통형의 하얀 복도 양쪽에는 미술 작품 20여 점이 띄엄띄엄 걸려 있었다.

대학생 이지윤(24) 씨는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어 작가가 궁금해 주변을 살펴봤는데 설명 표지판이 없다"면서 "눈으로만 감상하세요"라는 경고 문구 외에 다른 안내가 없어 어렵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경기도 정왕동에서 온 심은정(66) 씨는 친구가 동네에 살아 자벌레를 자주 방문했다고 했다. 심씨는 "전에 손녀와 왔을 땐 여러 가지 불빛이 나오는 다리나 애들이 만든 미술

작품 등이 전시되어 있어 참 재밌게 봤는데, 오늘은 정말 볼 게 없다"면서 "계속 이런 식이면 다신 안 올 것 같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3층에서 만난 시민 김모(36) 씨는 "여기에 생태체험관이 있다고 해서 공원에 온 김에 애들을 데리고 한번 와 봤다"면서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어항 안에 고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물 위에는 나방만 떠다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온 박모(42) 씨는 "자벌레가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만든 시설이어서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 때 한 거면 이렇게 방만 운영하잖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6일 시에 따르면, 자벌레는 2010년 조성 이후 매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30~40회의 전시가 열렸다. 또 해마다 150회의 공연, 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그러나 자벌레는 다른 유사시설과 차별화되지 않은 콘텐츠로 방문객이 꾸준히 줄었다. 자벌레의 방문객 수는 2010년 103만5000명, 2011년 95만 3000명, 2012년 80만명, 2013년 74만 8000명, 2014년 71만8000명, 2015년 71만3000명, 2016년 63만9000명, 2017년 49만6000명으로 개장 이후 계

속 감소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자벌레 유지관리비는 2014년 4억400만원, 2015년 4억 2100만원, 2016년 4억5200만원, 2017년 5억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비용으로 11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벌레 조성 당시 투입된 예산(150억원)의 8%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한 차례의 시설 누수 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자벌레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내부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내년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길'

썰렁한 1, 3층과 달리 도서관이 있는 2층의 분위기는 훈훈했다. 2층 '책 읽는 벌레'에서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네 주민과 독서를 하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을 만나볼 수 있었다.

성수동에 사는 홍성연(17) 씨는 "공원에 놀러 나왔는데 비도 오고 너무 추워서 친구들과 잠깐 들어왔다"면서 "조용히 쉴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광진구 자양4동에서 온 심영희(65) 씨는 "동네 주민이지만 자벌레에는 오늘 처음 와봤다"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책 읽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심 씨는 "아늑한 공간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며 "막대한 돈을 들여 건물을 세워놨으면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등학생 양서원(17) 씨는 "지나다 면서 몇 번 보긴 했지만, 안에서 뭘 하는지 몰라 와 볼 생각을 못했다"면서 "주변에 독서실이 파랑치 않아 불편했는데, 카페형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된다고 하니 이제 여기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며 밝게 웃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2층에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층과 3층은 휴식공간 및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리모델링 후에는 층별 컨셉에 맞게 공간 구성을 달리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벌레는 오는 12월 리모델링을 위해 폐장한다. 시는 내달 공사에 착수해 2019년 4월 준공할 계획이다. 독심 자벌레는 시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유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카페형 도서관으로 새로 단장해 내년 5월 1일 문을 열 예정이다.

/글·사진=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